

한국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에 관한 조선시대 성리학의 심리철학 논쟁으로 볼 수 있는 4단7정론 가운데 일부 실증연구가 가능한 내용을 심리학적 가설 명제들로 정리하고, 두 연구를 통해서 이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섯 대인관계에서 4단과 7정의 각 정서들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자유반응으로 조사하여 4단과 7정을 각각 유발하는 상황들이 질과 양에서 어떤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가설의 방향과 일치되게 당위적 도리와 합치되는 상황에서 4단이 경험된다고 보고된 빈도가 높았고, 7정에서는 개인의 목표나 기대를 기준으로 경험된 상황들의 빈도가 높았으나 당위적 도리를 기준으로 경험된 상황들도 일부 포함되었다.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유형, 행동적 사건의 도리 합치여부, 행위주체 및 정서주체 변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여러 사회적 맥락에서 각각 경험한 4단7정을 선악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의 결과를 보면 4단 범주에 속하는 정서들은 전제로서 선하다고 평가되고, 7정 범주의 정서들은 악하다고 평가되었으며, 4단과 7정에 관한 평정치들을 각각 종합할 때 선악 평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추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4단에서는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하다는 평정치가 유사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정에서는 차이가 유의했다. 그러나 개별 정서의 평가를 보면 당위적 도리의 기준들과 상관없이 4단의 수오는 악하며 7정의 애정은 선하다고 평가되어서 4단의 수오와 7정의 애정에 대한 선악 평정에서 4단7정의 선악차이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대안 가설들 및 펠자(1996, 2000)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였고, 장래 연구의 과제와 방향도 검토하였다.

주요어: 한국유학, 4단7정론, 정서심리학, 선악판단, 실증연구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의 중요한 내용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협조해 준 손정락 교수(전북대), 김정남 교수(경상대), 성한기 교수(대구가톨릭대), 이도형 박사(성균관대), 강혜자 박사(대구대), 이경성 박사(성균관대), 박군석, 윤창영, 한인순, 김금미 강사에게 감사한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수고한 이경성 박사, 김금미 강사를 비롯해서 성균관대학교 사회심리학연구실의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4단7정론은 조선시대 한국유학 고유의 심리철학에 근거를 두고 전개된 정서 논쟁이다. 현재 한국심리학은 서양심리학설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전통 한국심리학으로 본다면 이 4단7정론이 심성론 등과 아울러 핵심을 이룬다. 이 논쟁의 핵심은 유학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심성이나 사회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4단과 7정이 선악의 평가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정서들이라는 가정에 있다. 달리 말하자면 4단과 7정을 선악의 차원에서 구분할 때 이기론(理氣論)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여야 타당성이 있는 이론이 되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현재 시점에서도 이 주제는 한국철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민족사상사연구회, 1992). 그러나 이 논쟁에는 인간의 심성과 정서에 관한 이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심리학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최근에야 몇 학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정양은, 1973; 한덕웅, 전경구, 1991; 한덕웅 1994, 1996, 2000).

서구의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정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정서가 유발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의 정서 경험이 사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다룬다. 또한 정서 경험이 생활에 미치는 기능적 영향을 연구하고자 적응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자주 다룬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정서와 창의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예, Averill, 1992; Averill, Chon, & Hahn, 인쇄중). 그러나 서구에서 정서를 개인의 심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심리학의 과제로 다루는 연구들과 달리 한국 유학의 4단7정론에서는 이 정서들이 개인의 심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도 선악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서구에서도 Aristotle 이후 근대 서구 사상의 영향으로 이성애 근거를 두는 정서이론들이 대두되

기 이전까지 정서를 선악 차원에서 다루는 이론들이 제안된 바 있다(Solomon, 1993). 그러나 근세 이후 이 주제는 서구심리학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최근까지 이 관점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다루게 되면 동서양의 정서심리 이론들을 연결지어서 논의하고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서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학 가운데 성리학에서는 4단과 7정이 도덕적 경험이나 선악의 측면에서 서로 달리 평가된다는 가설을 이기론의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도덕적 경험이나 선악판단의 가설이 수립된 근거를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4단7정론은 다양한 정서심리 이론들로 재정리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정서심리이론들과 관련지어서 한국의 전통 정서심리학설을 연구하게 되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된 정서 경험의 도덕적 평가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게 되면 서구의 정서심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서 경험을 도덕적 판단의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전개된 4단7정론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부 가설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실증연구가 가능한 기본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유학의 정서설: 유학 사상에는 인간의 정서 경험에 관한 독특하고 흥미있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유학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예기(禮記)에는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정서들을 포괄해서 기쁨

(喜), 노함(怒), 슬픔(哀), 즐거움(樂)의 네 정서를 대표적 정서들로 요약하기도 한다.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이 네 정서들의 구분은 유학 사상의 오랜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어서 이미 한나라 때 정리된 예기(禮記)에서는 기쁨(喜), 노함(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싫어함(惡), 및 욕망(欲)의 이른바 7정으로 분류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성리학에서는 인간 정서를 10정으로 분류한 학자도 있으나 대체로 7정 범주가 자주 사용되었다.

한편 유학심리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맹자(孟子)에 이르러서 4단 정서에 관한 심리학설이 나타난다. 맹자는 유학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 경험들로서 측은(惻隱), 수치와 혐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이른바 사단을 강조하였다. 맹자 이전에는 이 사단 가운데 측은과 사양만 강조되었다. 맹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심성의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지닌다(孟子, 盡心章).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 4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4덕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4덕을 지니고 4단의 체험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지니는 도덕적 속성을 함양하여 더욱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기 어려운 이 심성(不忍之心)의 경험들이 우세하도록 자기수양을 통해서 4단의 경험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4단을 설명하면서 측은, 수오, 사양 및 시비의 네 정서들이 각각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네 가지 덕목(四德)들인 어짐(仁), 의로움(義), 예의(禮) 및 지혜(智)의 단서(端)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4단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계기

를 제공하게 된다. 맹자의 이 이론을 설명하는 그 후의 관점들 가운데 주희(朱熹)의 이론은 조선시대 한국유학에서 4단7정론이 전개되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제공하게 된다. 주희는 마음(心)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마음이 작용하지 않은 미발(未發) 상태는 물론이고 이미 작용한 이발(已發) 상태도 있다고 보고, 마음이 미발과 이발의 이중구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의 미발된 상태는 본체(體)이며 이발된 상태는 작용(用)이라고 부른다. 이 이중구조의 체용론(體用論)은 주희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서 조선시대 후기에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대두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주희는 그의 성리학에서 제안한 체용론을 4단7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적용하였다. 그는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의 상태(體)를 성(性)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性)은 마음 가운데 원리, 원칙 혹은 법칙을 의미하는 학술용어로서, 이른바 마음 가운데 리(理)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달리 말해서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에도 원리, 원칙 혹은 법칙에 해당하는 원리 혹은 도리(理)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성(性)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마음이 이미 작용한 상태를 총칭해서 정(情)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의 정의에서 보는데로 성리학 용어로 사용된 정(情)이란 용어는 심리학적 의미로 보면 정서, 의지, 지향성, 사고, 행동의도 등의 기능들이 이미 마음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성리학에서 사용하는 정(情)의 개념은 심리학으로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 역시 포괄하는 용어이다. 또한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전의식, 무의식, 생리적 흥분의 유발, 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작용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마음을 성(性)과 정(情)의 구조로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 이론이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이른바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한다는(혹은 관장한다는) 심통

성정론(心統性情論)이다. 심통성정의 개념은 성리학 이전에 장재(橫渠, 張載)에 의해서 이미 제안되었으나 주희의 성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희는 이 관점을 4단7정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안한다. 어짐(仁, 肫), 옴(義, 儀), 예의(禮) 및 지혜(智)로 구분되는 네 가지 덕목은 마음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본체로서 성(性)에 해당된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인 성(性)은 이 네 덕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네 덕목들은 성(性)의 두 하위 범주들 가운데 하나인 본연의 성(本然之性)에 해당된다. 본연의 성과 구별되는 성(性)의 또 다른 하위범주는 기질의 성(氣質之性)이라고 불렀다. 한편, 본연의 성(性)에서 핵심을 이루는 인의예지의 네 덕목들은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각각 측은(惻隱), 수치와 혐오(羞惡), 사양(辭讓) 및 시비(是非)의 네 정으로 경험된다고 가정하였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성리학에서 인간이 생래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인의예지의 4덕은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달리 마음이 이미 작용할 때 실제로 경험되는 내용은 각각 측은, 수치와 혐오, 사양, 및 시비의 4단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작용한 사단을 체험하면, 이 경험이 단서가 되어서, 비로소 현상학적으로 4덕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이처럼 4덕이 핵심 요소가 되는 성(性)이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형이상의 가정은 심리 현상으로 보면 마음이 작용한 4단 경험에 의해서 존재가 실제로서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4단7정론의 개요: 앞에서는 성리학에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체용론(体用論)과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간략히 설명했다. 주희의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기론(理氣論)을 4단7정의 설명

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점을 유발하는 이론들이 제안된다. 즉, 우주론 혹은 존재론으로 형성되어서 인간의 심성을 설명하는데까지 적용되었던 이기론을 인간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4단7정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기의 심리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도출된다(이에 관해서는 민족사상연구회, 1992 참조). 그 결과로 파생된 다양한 4단7정론은 심성론과 아울러 그 당시 중국의 유학과 구별되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이 다양한 4단7정론은 조선시대 사상사의 배경에서 인간의 심리를 다룬 핵심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 전통 심리학설들은 사회와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조선조 여러 정치 세력들 간의 현실적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이론적 쟁점이 된다. 달리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정(情)을 설명하는 학파들의 관점 차이가 학파의 대립을 넘어서 여러 정치 세력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이념의 토대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성리학과 그 후 유학에서 전개된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다루려면 조선시대 다양하게 제안된 4단7정론의 핵심 과제들을 정리하여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안 이론들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단7정론의 심리학적 과제, 대안 이론들,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필자(1994a, 1994b, 1995, 1996)의 줄고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먼저 이기론이 4단7정에 적용된 후 전개된 논쟁의 요점을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정서심리 이론의 측면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조선시대 사단칠정론이 전개된 계기는 구체적으로 퇴계의 이론과 고봉의 반론에 의해서 제공된다. 퇴계는 초기 이론에서 사단과 7정이 각각 이

(理)와 기(氣)가 발한(發) 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주(程朱) 성리학에서 사용한 이기의 개념 정의와 표면적으로 모순된다. 정주(程朱) 성리학에서 리(理)는 모든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치, 법칙, 원리로 정의되지만 스스로는 작용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다. 반면, 기(氣)는 모든 현상이 나타나도록 작용하는 질료, 작용, 힘으로서 스스로 작용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성리학에서 이와 기는 이처럼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모든 현상에서 이와 기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이 명제가 바로 울곡(栗谷)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理氣)는 서로 섞어서 말할 수도 없지만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진술이다(理氣, 不相離, 不相離). 그는 이 명제를 요약하여 이기의 묘(理氣之妙)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명제로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현상을 정서 경험의 측면에서 분류한 4단7정 역시 이기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버리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퇴계가 인간의 정서를 설명할 때 4단과 7정이 각각 이(理)와 기(氣)의 발함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은 전통적 정주(程朱) 성리학에서 유지된 이기의 개념 정의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배치된다.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퇴계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기대승(高峯, 奇大升)이 이가 발한다고 주장한 퇴계의 이론을 반박함으로써 명세화된다.

퇴계와 고봉의 논쟁은 조선시대 300년을 계속한 사단칠정 논쟁을 거치면서 4단7정에 관한 한국 고유의 심리철학으로 형성된다. 사단칠정에 관한 울곡(栗谷)의 주장도 주희(朱熹)의 성리학에 충실한 고봉(高峯)의 견해와 큰 줄거리에서는 유사하다. 울곡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기만 작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기론으로 볼 때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이른바 氣發理乘一途說).

퇴계는 고봉의 비판을 계기로 4단7정이론을 수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명제는, 정주(程朱)의 관점대로 이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는 이기관에 모순되지 않도록, 초기 이론을 보완한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 수정된 명제에서는, “사단이란 이(理)가 발함에 기(氣)가 (理를) 따르는 것이며, 7정이란 기(氣)가 발함에 이(理)가 (氣를) 타는 것이다”(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 이처럼 이(理)가 작용(發)한다고 주장하는 퇴계의 이론은 정주(程朱) 전통에서 보자면 적어도 용어의 개념적 정의에서 일치되지 않는다. 비록 퇴계가 이(理)의 작용함(發)을 주장할 때 이 주장의 지지 근거로 주희(朱熹)가 만년에 이의 작용(理發)을 언급한 간략한 기술문을 인용하지만, 퇴계의 이론 체계로 보면 이(理)의 의미나 속성이 주희(朱熹)에 의해서 정의된 내용보다 확장된 점을 볼 수 있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퇴계의 심성론에서 이(理)의 속성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법칙 혹은 원리(所以然의 理)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원리 혹은 도리(道理, 所當然의 理)의 측면이 특히 강조된다. 이 강조점으로 보면 퇴계의 심성론에서 이(理)가 발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학에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정한 도리(道理)가 인간의 마음에서 일종의 지향성으로 작용하여 생리과정, 사고, 정서 경험 및 행동의도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기능해야만 선한 감정, 사고 및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가정이 밑받침되어 있다. 필자가 이처럼 해석하는 이유는 이른바 주리론자들이 이(理)를 떠나서 선한 심적 경험이 발현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 성리학에서 이(理)의 속성에 대해서 퇴계를 포함하는 이른바 주리론자(主理論者)들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이 선

하거나 악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理)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율곡(栗谷)을 포함하는 이론바 주기론자(主氣論者)들은 기(氣)가 작용할 때 기질(氣質)이 맑거나 탁하거나, 순수하거나, 뒤섞인(淸濁粹駁) 성질이 작용하는데 따라서 선하거나 악한 심리적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율곡의 말을 인용하면 “4단과 7정을 두 가지 정(情)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理)와 기(氣)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못한 까닭이다. 대체로 말하자면 정이 발할 때 발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聖學輯要, Ⅲ, 窮理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서 기질의 어떤 요소가 어떻게 심적으로 작용하여 사람이 선하거나 악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율곡의 이론에는 기질을 개성에 따라서 고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矯氣質論)이 있을 뿐이다(聖學輯要, Ⅲ, 矯氣質章).

퇴계가 인간의 심적 작용을 설명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의 측면에서 이(理)의 능동적 작용을 강조하지만 이(理)의 이러한 속성에 의해서 인간이 선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관심사는 퇴계의 4단 명제인 “이(理)가 발함에 기(氣)가 따름(理發而氣隨之)”이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있다. 달리 말해서 퇴계의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선한 경험으로 간주된 사단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이 명제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퇴계의 4단 명제 가운데 이발(理發)의 관점은 현대 심리학으로 해석하면 다음 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관한 지향성이나 신념이 능동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 심적 조건에서 사회적 사건에 당면하게 되면 4단이 경험될 확률이 높

다(사단명제). 정서 경험과 연결지어서 다시 정리해 보면 4단이란 인간이 지녀야 할 당위적 도리를 추구하도록 심적으로 지향되어 있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정서 경험이다. 그러므로 기능으로 볼 때 4단 정서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행동의도의 방향도 당위의 기준을 지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4단의 정서 경험을 유발한 상황들은 7정의 경우보다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할 때 유학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당위의 기준이 작용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퇴계의 학설에서 4단과 달리 7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퇴계의 이 7정 명제(氣發而理乘之)를 심리 과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다. 인간의 활성화된 심적 작용에 의해서 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 조건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의 능동적 작용(理發)과는 무관하므로, 선하거나 혹은 악할 수도 있으나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당위의 기준을 추구하도록 자기조절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 악으로 흐르기 쉬운 이치를 지니게 된다(칠정명제).

한편, 율곡은 이기(理氣)의 관점에서 존재론을 제안할 때 이(理)는 일반 원리를 통괄하여 설명하는 보편적 개념(理通)이고 기(氣)는 구체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氣局)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주희와 마찬가지로 율곡의 이론에서 기(氣)는 작용을 의미하고 이(理)는 기(氣)가 작용함(氣發)에 이미 실려있는 원리(理乘之)로 설명된다. 율곡의 이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4단 7정론에 적용하면 4단과 7정이 모두 기발이승(氣發理乘之)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니는 선한 본성의 원리가 마음의 지향성으로 실려있어서 도리에 합당한 조건일 때 마음이 작용한 경우면 4단이나 7정 모두 선한 정서가 된다는 주장이 된다. 이와 동일한 논리에서 도리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에서

마음이 작용한 경우라면 4단이나 7정이 모두 악한 정서가 된다(도리적합명제).

필자가 퇴계의 4단7정 명제들을 이기론과 연결 지어서 해석할 때 사용한 중요한 용어들(예: 理發, 所當然 등)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의와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인간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에 대한 지향성이나 신념은, 유학의 관점을 떠나서 가치중립적으로 말한다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 사상에서는 사회 상황을 대인관계의 유형별로 나누는데 근거를 두고 선한 마음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도리에 관한 이론이 명세화 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학에서는 이 도리가 사회적 구성 과정을 거쳐서 규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군신 간의 의리와 충성, 부모 자식 간의 자애와 효(孝), 부부 간의 세력과 역할 분담, 노인과 어린이의 우선 우대 및 친구 간의 신의로 정리된다. 그러나 대인관계 유형별로 명세화된 이 당위적 도리는 시대에 따른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제도나 규범이 변화되는데 따라서 각 시대에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이미 필자에 의해서 상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拙著, 1994, 153-157쪽).

이 도리와 관련해서 더욱 주목을 끄는 점은 유학에는 구체적으로 도리에 맞는 행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동의 전형 혹은 원형이 제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임금을 모시는 방식, 아래 위 사람을 대하는 방법, 효도하는 방식, 장례나 제사 지내는 의식 등의 예법(禮法)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 예법의 연구는 체계를 형성하여 예학(禮學)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사회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의 규범적 행동 규칙으로 사회에서 구성되는 이 예법 역시 현 시점에서는 현대 사회에 적합하도록 변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에 적합한 예법이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학에서 시대에 적합한 예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학 심리학의 이론으로 볼 때 자기 행동의 환류(省察)에서 예법이 행동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학의 자기수양(修身)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예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拙著, 1994, 158-164쪽). 이 관점에서 필자는 유학의 예법(禮法) 역시 유학의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적절한 기능을 다 하려면 시대의 사회 상황에 알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도리에 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능동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이발(理發)의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가 작용한다(理發)는 설명에서 도리에 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능동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 심적 상태는 퇴계 사상에서 여러 수준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퇴계가 이(理)가 작용한 이발(理發)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이나 이미 작용한(已發) 상태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敬)을 통해서 살펴보자.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의 미발(未發) 조건에서 경 상태에 이르는 기법인 존양(存養)에서는 사심없고, 각성되고, 안정된 무념무상의 심적 상태를 강조한다. 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하므로 이 존양 상태에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무의식, 전의식, 혹은 의식 가운데 어느 수준에서든지 선을 추구하는 심적 지향성이 우세한 조건이 된다고 본 듯하다. 이 해석에 근거하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심리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의식화되지 않은 수준에서도 마음이 작용할 때 도리를 지향하는 경향이 능동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마음이 이미 작용한 조건에서 경(敬) 상태에 이르는 기법인 성찰(省察)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서 경험한 사고, 정서, 의지, 및 행동과 아울러 이 요소들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를 스스로 환류하여 도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성찰 과정에서 의식 수준에서 환류 과정을 거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우세화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측면 이외에 또 다른 측면으로 의식 수준과 상관없이 도리에 맞는 행동이 반복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되고 자동화되어서 도식화되어 있는 실행지식 수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퇴계는 도리에 대한 지향성이 이미 도식화되어 있어서 의식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작용하는 경우를 이도(理到)의 경지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가설

맹자 이래 조선시대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유학에서 4단이 선한 정서로서 가정되었지만 이처럼 가정되는 배경을 심리 과정으로 설명하는 일이 유학 심리학의 이론적 과제였다. 이 과제를 다루면서 한국 유학자들은 이기론과 조화되는 심리학 이론을 직접 제안하지 않고 흔히 심리적 기능에서 4단과 7정이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사례를 일화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때문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조 성리학에서 전개된 4단7정론에서는 4단이 선하다고 평가되고 7정이 악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필요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 역시 4단과 7정의 경험들을 각각 유발하는 상황들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4단과 7정을 선악 판단할 때 본 연구의 가설들이 지지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연구에서 4단과 7정의 경험을 통해서 각 정서를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선한 마음과 행동의도를 지니도록 하는 개인적 기능과 아울러 사회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장래 수행할 심리적 기능 연구의 결과들을 본 연구에서 얻은 선악판단의 결과들과 연결지어서 논의하면 4단7정의 경험 → 개인 및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기능적 영향 → 4단7정의 선악판단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해명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퇴계가 주장하는 이(理)가 우세하게 작용하는(理發) 조건이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적 수준으로 볼 때 무의식, 잠재의식, 및 의식의 세 수준 가운데 어떤 수준에서든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마음에서 우세한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행동적 사건에 당면하면 도리에 관한 우세한 지향성 때문에 당위적 도리를 기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사단을 우세하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서 4단이 우세하게 경험된 행동적 사건들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선한 경험이 되고 도덕적 판단에서는 선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관한 지향성 혹은 신념이 우세하게 작용한 상황에서 4단 경험은 선하게 평가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두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의 측면에서 이 가설들이 성립되는 이론적 배경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1에서는 4단과 7정에 속하는 각 정서들을 자주 유발하는 상황들을 알아봄으로써 4단과 7정 두 범주의 정서들을 유발한 사건들이 당위적 도리를 기준으로 경험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행동적 사건에 당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당위적 도리가 심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했을 때 경험된다고 가정

된 4단이 도리와 무관하다고 가정된 7정 경험보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평가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인간이 개인적 선을 추구할 때보다 바람직한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조건에서 유학에서 주장하는 당위적 도리를 추구하는 심리가 더욱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바람직한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선의 관점에서는 개인선의 관점보다 4단 경험을 더 선하다고 평가하고, 7정 경험을 더 악하다고 평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필자(1996; 2000)의 관점으로 보면 4단7정론은 심리적 과정으로 볼 때 사회 상황이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 수준 → 4단7정 경험 → 심리적 기능 추론 → 선악판단 가운데 어느 단위에서도 서로 연결지어서 연구할 수 있다. 이 단위로 보자면 연구 1은 4단7정 정서들이 유발된 상황들이 당위적 도리의 합치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당위적 도리의 합치 수준 → 4단7정 경험). 연구 2는 당위적 도리의 합치 수준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각각 4단과 7정 정서들을 경험할 때 4단7정 범주의 정서에 대한 선악판단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당위적 도리의 합치 수준에 따른 4단7정 경험 → 선악판단). 연구 1, 2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를 두고 종합 논의에서는 필자(1996; 2000)의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당위적 도리의 합치 수준 → 4단7정 경험 → 심리적 기능 추론 → 선악판단의 연결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의 선행연구(1996; 2000, 연구 2)에서는 대인관계나 당위적 도리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4단7정 정서들이 선악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유형과 도리에 합치되는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상황의 맥락 효과를 고려해서 연구 결과를 얻으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상황 맥락의 중요성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연구 1: 4단7정을 유발하는 상황

4단7정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틀로서 필자(1996)가 제안한 『4·7 정서 유발 조건 → 4단7정 경험 → 후행 결과 평가』의 시계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4단7정의 정서 경험을 유발하는 조건들에서 4단과 7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리학 이론에서는 4단은 대체로 인간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볼 때 당위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7정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이거나 당위적 인간상과 상관없이 경험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입증하려면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 명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 1에서는 4단7정론에서 4단이 도덕적 이상이나 당위의 기준에 일치되는 정서라고 가정하는 점에 근거를 두고 행동적 사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이상이나 당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7정보다 4단이 우세하게 경험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 I).

한편 4단7정론에 따르면 7정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당위적 인간상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이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7정 경험은 4단과 달리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당위적 기준이나 개인적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조건들 가운데 어떤 조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 II).

가설 I 과 II를 연결지으면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이나 당위의 기준이 우세하게 작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서의 유발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7정보다 4단에서 빈도가 높다고 예언할 수 있다. 이 가설은 4단과 7정을 각각 우세하게 유발하는 중요한 행동적 사건들이 각각 이상적 혹은 당위적

기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목표를 정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가설 III).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가운데 4단7정 각 정서들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조사하여 4단과 7정 경험을 각각 유발한 사건들이 이상이나 당위의 기준이 작용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4단7정 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조사할 때 유학에서 오륜(五倫)으로 명세화된대로 군신, 부자, 부부, 남녀, 노소 및 친구관계의 대인관계 유형 분류법을 현대 대인관계의 유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각 대인관계에서 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알아내고자 한다. 유학에서 다섯가지 대인관계를 특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먼저 자기와 긴밀한 유대를 지니는 대인관계에서부터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한다고 가정하는 도리를 실천하여 점차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4단7정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각 정서를 유발하는 중요한 상황들을 가려내어서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진 개별 정서의 연구 결과들과 간략히 비교하게 된다.

연구 방법

조사 질문지

조사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각 정서를 경험했을 때 그 정서가 어떤 경우에 유발되었는지 원인이 되는 상황을 자유롭게 적도록 개방식 질문을 사용했다. 각 정서가 유발된 상황들은 대인관계별로 적도록 하였는데, 대통령-국민, 부모-자녀, 남편-아내, 어른-젊은이, 남자-여자, 친구-친구의 여섯 관계를 사용했다. 4단에 포함되는 정서들로는 측은, 수치/혐오,

사양 및 시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수치와 혐오 정서를 일으킨 상황을 적은 내용들은 따로 빈도를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평균 빈도를 얻었다. 한편 7정에 포함되는 정서들로는 기쁨(喜), 분노(怒), 사랑(愛), 두려움(懼), 슬픔(哀), 미움(惡), 욕심(欲)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6)와 4단7정 정서(11)를 포함하는 총 66개 조건들을 각각 생각해서 조사 참여자가 응답하도록 했다. 조사 참여자는 각 대인관계에서 각 정서의 경험을 유발한 행동적 사건들을 적을 때 최대 세개씩 간략히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정서들을 유발한 행동적 사건들 가운데 빈번하게 나타난 상황들을 알아 보았다.

자료의 처리

조사 참가자들이 각 정서를 유발한 상황이라고 기술한 진술문들을 내용분석하였다. 먼저 각 응답별로 적은 내용에 따라서 각각 소분류 번호를 주어서 일차로 분류하고,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2인이 토의하여 내용의 유사성이 높으면 동일한 소분류 범주로 묶고, 각 소분류별로 반응의 빈도를 산출하여 빈도가 극히 작은 범주들만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최종 소분류 범주를 정하였다. 각 소분류별 빈도를 계산할 때 각 참여자가 적은 각 상황을 빈도 1로 집계하였다. 조사 참여자가 정서를 유발한 상황이나 조건들이라고 적은 내용들을 두 박사과정생들이 각각 분류하고, 두 사람이 분류하여 소분류가 일치하는 내용들만 가려내어서 분류의 합치도가 100%인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할 때는 각 참가자들이 적은 상황들을 모두 더했을 때 최종 빈도의 합계가 100이상 되는 범주들만 가려내어서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대인관계 유형×4단7정의 2원 빈도표를 작성하였다. 이어

서 각 정서를 유발한 사건들의 범주별로 발생 백분율을 산출하고, 선형대수분석기법(log-linear)를 사용하여 중요한 변인들간 백분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조사의 참가자

현재 대학의 강의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4단7정에 관하여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양학에 관해서 친숙하지 않은 대학 1, 2학년 학생들 363명이었다. 필자(1996, 1997, 1998, 2000)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대상을 대체로 4단7정론을 모르는 학생들로 선정한 이유는 유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 정서들의 경험이 선천적이라고 가정하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단7정론에 관해서 사전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이 지식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단7정론을 모르는 대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대인관계에 따른 4단7정의 경험 상황

4단과 7정 정서를 각각 유발하는 상황으로 기술한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6가지 대인관계 별로 각 정서를 발생시킨 행동적 사건의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4단7정 정서들이 발생한 상황으로 적은 빈도를 합쳐서 보면 이 정서들 가운데 분노(1116), 미움(1037), 슬픔(1033)을 유발한 상황들이 가장 많이 기술되었다. 이 결과는 4단보다 7정 가운데 특히 부정적 정서들이 유발된 상황을 기술한 내용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욕심(욕망)(233)을 유발한 상황들이 가장 적게 기술되었다. 상대적으로 정서를 유발한 상황들을 적게 지정한 4단 가운데는 사양(366)을 유발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기술되었다. 측은(524), 수오(602) 및 시비(570)를 유발하는 상황의 빈도는 사양보다 높아서 7정 가운데 두려움(640), 기쁨(526), 사랑(519)과 유사한 발생 빈도를 보였다.

② 4단7정 정서를 유발한 각 상황별로 빈도를 합산했을 때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4단7정 정서를 많이 유발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부부관계(1158), 부자관계(1032)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녀관계(899), 친구 관계(838) 및 장유관계(678)였으며, 대통령-국민관계(499)에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로부터 자주 대면하고 친밀도가 높은 대인관계일수록 4단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서 4단과 7정 정서의 경험을 유발한 상황 혹은 사건의 빈도가 각기 달랐다. 다음 그림 1에서 대인관계 유형별로 4단과 7정의 발생 빈도를 각각 합산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7정을 유발한 상황들의 수를 합한 빈도를 4단과 쉽게 비교하고자 7정 역시 네 정서당 발생 빈도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4/7로 곱한 빈도를 산출했다. 각 정서 당 상황의 수를 이처럼 산출하여 4단과 7정 유발 상황들의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로 차이 검증했다.

이 그림에서 4단과 7정의 발생 빈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4단과 7정의 정서 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7정(2917)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4단(2062)보다 자주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chi^2(1, N = 363) = 6.75, p < .01$). 이 결과에서 7정과 비교해 볼 때 4단을 유발하는 상황 혹은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당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유학에서 4단이 비록

표 1. 대인관계별로 본 4단7정의 발생빈도

4·7 정서	대인관계유형						합 계
	대통령/국민	부/자	부부	젊은이/어른	남녀	친구	
측 은	38.00	107.00	116.00	69.00	78.00	116.00	524.00
수 오	71.00	111.00	135.50	79.00	82.50	123.00	602.00
사 양	15.50	42.00	63.00	125.50	63.50	56.50	366.00
시 비	74.00	117.00	91.00	91.00	120.00	77.00	570.00
4단 소계	198.50	377.00	405.50	364.50	344.00	372.50	2,062.00
기 뵈	50.00	124.00	124.00	69.00	94.00	65.00	526.00
분 노	118.00	195.00	242.00	144.00	207.00	210.00	1,116.00
사 랑	42.00	113.00	122.00	98.00	82.00	62.00	519.00
두 려 움	51.00	147.00	143.00	81.00	118.00	100.00	640.00
슬 픔	130.00	213.00	253.00	134.00	139.00	164.00	1,033.00
미 움	94.00	194.00	234.00	131.00	167.00	217.00	1,037.00
욕 심	14.00	46.00	40.00	21.00	92.00	20.00	233.00
7정 소계1	499.00	1,032.00	1,158.00	678.00	899.00	838.00	5,104.00
7정 소계2	285.14	589.71	661.71	387.43	513.71	478.86	2,916.57
4.7합계	483.64	966.71	1,067.21	751.93	857.71	851.36	4,978.57

주. 7정 소계 1 : 7정 소계. 7정 소계 2 : 7정 소계×4/7. 4·7합계 : 4단 소계 + 7정 소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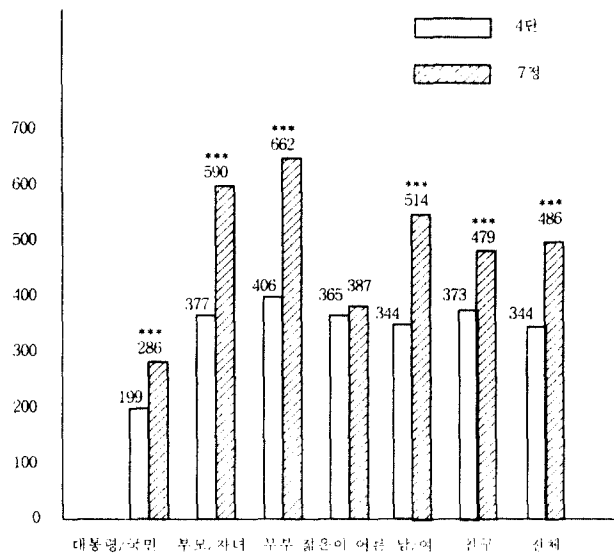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별로 본 4단7정의 발생빈도

생래적 정서이지만 7정 정서들에 비해서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수양을 통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유형별로 4단과 7정의 경험을 유발한 상황으로 기술한 빈도를 위의 빈도 지수로 차이 검증했을 때 전체 6개 대인관계 유형들 가운데 노인과 젊은이 관계에서만 4단과 7정을 유발한 상황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다섯 개 대인관계 유형들에서 4단보다 7정을 유발한 상황의 빈도가 높아서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 차이는 그림 1에 ***로 표시하였다.

4단과 7정을 각각 유발하는 상황

4단과 7정 각각의 정서들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요약한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이 표는 4단7정 정서를 각각 유발시킨 상황들로 지정한 내용 가운데 전체 빈도가 높은 39개 상황들만을 순서대로 가려내어서 만들었다. 이 결과로부터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4단과 7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단을 유발하는 상황

먼저 4단에 속하는 각 정서의 발생 상황별 빈도를 살펴보자. 측은은 상대가 아플 때(204), 힘들어 할 때(75), 울 때(61), 무능할 때(28), 초라할 때(16) 자주 유발되었다. 이로부터 측은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타인이 고통받거나 무력한 상태에 처했을 때 자주 유발되는 친사회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수오는 상대가 무시할 때(59), 거짓말할 때(42), 욕할 때(38), 술주정할 때(37), 부정축재/비리 등을 저지를 때(34), 무능할 때(30), 싸울 때(21), 이기적일 때(19), 잘난척할 때(19) 자주 유발된다고 보고했다. 수오 가운데 수치심은 자신이 행위자이고

협오는 타인이 행위자인 조건에서 도덕적 기준을 위배할 때 자주 발생했다. 이로부터 수오는 의도적으로 특히 타인이 당위적 기준이나 기대를 침해하는 조건에서 자주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사양은 양보받을 때(74), (상대가) 아플 때(68), 힘들어할 때(50), 약해 보일 때(25), 사랑할 때(18) 자주 유발된다. 이로부터 사양도 측은과 유사하게 타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조건에 당면했을 때 자주 유발되는 친사회적 행동이지만, 상대의 양보에 대한 호혜적 반응이거나 사랑의 표현으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시비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82), 무시할 때(79), 거짓말할 때(44), 고집부리거나 독단적일 때(39), 싸울 때(36), 부정축재/비리 등을 저지를 때(29), 배신할 때(16), 술주정할 때(15), 대들 때(14) 자주 유발된다. 이 결과는 시비 역시 수오와 유사하게 특히 의도적으로 당위적 기준 혹은 기대를 침해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비의 경우는 수오와 달리 의도성이 불분명하더라도 행동의 결과가 나쁜 조건(예, 상대의 잘못)에서도 가장 자주 유발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4단의 유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상대가 아플 때(273), 무시할 때(154), 힘들어할 때(126), 잘못했을 때(95), 외도할 때(75), 부정축재, 비리 등을 저지를 때(70), 무능할 때(70), 이기적일 때(65), 무식/무지할 때(54) 자주 발생한다.

이 결과로부터 4단 가운데 친사회적 정서들인 측은과 사양은 타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워 곤란에 당면한 경우에 자주 발생하며, 수오와 시비는 대체로 당위적 기준이나 개인의 기대가 침해된 조건에서 자주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4단 가운데 측은이나 사양은 상대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이상지향의 친사회적 정서들이고,

표 2. 4단과 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

상	상황	측은	수오	사양	시비	4단소계	기쁨	분노	사랑	두려움	슬픔	미움	욕심	7정소계	7정*4/7	4.7합계
1.	거짓말할 때/들켰을 때	6.00	57.00	4.00	44.00	111.00	5.00	131.00	3.00	31.00	48.00	106.00	3.00	327.00	186.86	297.86***
2.	나쁜 일을 할 때	0.00	15.00	0.50	11.00	26.50	0.00	5.00	0.00	4.00	6.00	7.00	0.00	22.00	12.57	39.07
3.	고집부릴 때/독단적일 때	0.00	7.00	1.00	39.00	47.00	0.00	19.00	0.00	11.00	7.00	16.00	2.00	55.00	31.43	78.43*
4.	때릴 때	1.00	10.50	0.00	3.00	14.50	0.00	29.00	0.00	48.00	10.00	17.00	1.00	105.00	60.00	74.50*
5.	대들 때	0.00	5.00	0.00	14.00	19.00	2.00	19.00	0.00	22.00	0.00	20.00	0.00	63.00	36.00	55.00
6.	말 안들을 때	3.00	3.00	0.50	5.00	11.50	0.00	19.00	1.00	8.00	13.00	41.00	0.00	82.00	46.86	58.36
7.	말 잘들을 때	0.00	0.00	1.00	0.00	1.00	12.00	0.00	30.00	0.00	0.00	0.00	2.00	44.00	25.14	26.14*
8.	무식/무지할 때	5.00	42.00	1.50	5.00	53.50	0.00	27.00	4.00	3.00	26.00	2.00	5.00	67.00	38.29	91.79
9.	무시할 때	14.00	59.00	2.00	79.00	154.00	1.00	211.00	3.00	28.00	76.00	183.00	4.00	506.00	289.14	443.14***
10.	바라봐줄 때/외도할 때	2.00	53.00	2.50	16.00	73.50	1.00	130.00	2.00	32.00	27.00	102.00	5.00	299.00	170.86	244.36
11.	배신할 때	1.00	14.00	0.00	6.00	21.00	1.00	82.00	0.00	6.00	40.00	41.00	1.00	171.00	97.71	118.71*
12.	부정축재/비리/비자금	7.00	33.50	0.50	29.00	70.00	1.00	54.00	1.00	3.00	13.00	45.00	2.00	119.00	68.00	138.00
13.	사랑한다고 할 때/사랑	0.00	2.50	17.50	1.00	21.00	52.00	0.00	74.00	1.00	9.00	4.00	17.00	157.00	89.71	110.71*
14.	선물을 때	1.00	0.00	8.50	0.00	9.50	82.00	0.00	48.00	0.00	0.00	1.00	3.00	134.00	76.57	86.07**
15.	속였을 때	1.00	10.00	0.00	6.00	17.00	3.00	65.00	0.00	6.00	7.00	26.00	0.00	107.00	61.14	78.14**
16.	속주정할 때	6.00	36.50	2.00	15.00	59.50	0.00	5.00	4.00	18.00	7.00	6.00	3.00	43.00	24.57	84.07*
17.	승진할 때	0.00	0.00	0.00	2.00	2.00	51.00	0.00	2.00	0.00	0.00	0.00	7.00	60.00	34.29	36.29
18.	싸울 때	0.00	21.00	2.00	36.00	59.00	3.00	29.00	1.00	44.00	20.00	34.00	8.00	139.00	79.43	138.43
19.	아름 안/못지킬/어길 때	204.00	1.50	67.50	0.00	273.00	1.00	0.00	14.00	14.00	220.00	3.00	5.00	257.00	146.86	419.86***
20.	악수 안/못지킬/어길 때	2.00	14.00	1.50	13.00	30.50	1.00	64.00	5.00	12.00	12.00	78.00	0.00	172.00	98.29	128.79***
21.	악해 보일 때	9.00	1.50	24.50	0.00	35.00	0.00	0.00	2.00	3.00	12.00	0.00	3.00	20.00	11.43	46.43**
22.	예의가 없을 때	2.00	14.00	0.00	12.00	28.00	0.00	15.00	0.00	3.00	0.00	19.00	0.00	37.00	21.14	49.14
23.	욕할 때	1.00	38.00	0.50	1.00	40.50	0.00	19.00	0.00	23.00	13.00	21.00	0.00	76.00	43.43	83.93
24.	용돈줄 때	1.00	0.00	12.50	1.00	14.50	20.00	0.00	25.00	1.00	0.00	2.00	9.00	57.00	32.57	47.07
25.	음매/눈물을 흘릴 때	61.00	0.50	3.00	0.00	64.50	1.00	1.00	3.00	8.00	62.00	0.00	4.00	79.00	45.14	109.64
26.	이기질 때	1.00	19.00	0.00	9.00	29.00	4.00	17.00	1.00	2.00	11.00	30.00	1.00	66.00	37.71	66.71
27.	이해해줄 때	2.00	1.50	7.50	1.00	12.00	69.00	0.00	77.00	0.00	0.00	3.00	8.00	157.00	89.71	101.71***
28.	이해해줄지 못할 때	0.00	1.00	0.00	11.00	12.00	0.00	23.00	0.00	2.00	61.00	40.00	5.00	131.00	74.86	86.86***
29.	일 공부 잘할 때/능력	1.00	1.50	4.00	0.00	6.50	56.00	1.00	31.00	7.00	0.00	1.00	36.00	132.00	75.43	81.93***
30.	일 공부 못할 때/능력	28.00	30.00	6.00	6.00	70.00	0.00	18.00	1.00	7.00	50.00	9.00	9.00	94.00	53.71	123.71
31.	자녀를 양보할 때	0.00	1.50	73.50	0.00	75.00	11.00	0.00	28.00	0.00	1.00	0.00	1.00	41.00	23.43	98.43
32.	잔나질할 때	3.00	19.00	1.00	11.00	34.00	0.00	18.00	0.00	0.00	6.00	48.00	1.00	73.00	41.71	75.71
33.	질문을 했을 때	0.00	7.50	5.00	82.00	94.50	1.00	9.00	0.00	35.00	5.00	2.00	5.00	57.00	32.57	127.07***
34.	추운 때	2.00	0.00	0.00	0.00	2.00	0.00	0.00	0.00	1.00	128.00	0.00	2.00	131.00	74.86	76.86***
35.	조라해 보일 때	16.00	6.50	3.50	0.00	26.00	0.00	0.00	0.00	1.00	8.00	0.00	2.00	11.00	6.29	32.29
36.	칭찬할 때	0.00	0.00	0.50	0.00	0.50	21.00	9.00	14.00	0.00	0.00	0.00	1.00	45.00	25.71	26.21*
37.	폭력을 사용할 때	0.00	8.00	0.50	0.00	8.50	0.00	14.00	0.00	94.00	1.00	8.00	2.00	119.00	68.00	76.50***
38.	화낼 때	0.00	0.50	0.00	8.00	8.50	0.00	8.00	0.00	110.00	1.00	6.00	0.00	125.00	71.43	79.93***
39.	힘들어할 때	75.00	1.50	49.50	0.00	126.00	0.00	0.00	6.00	2.00	36.00	3.00	6.00	53.00	30.29	156.29***
합	계	455.00	536.00	304.00	466.00	1,761.00	399.00	1,041.00	380.00	590.00	936.00	924.00	163.00	4,433.00	2,533.14	4,294.14

수오와 시비는 타인이나 자기 행동이 당위의 기준에 위배될 때 발생하여 이 기준에 합치되도록 기능하는 당위 지향의 정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유학에서 4단이 이상이나 당위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선한 정서로 가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 4단이 7정보다 선한 정서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4단이 7정보다 이상지향성이나 당위지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가정되었음을 시사한다.

7정을 유발하는 상황

먼저 7정 가운데 각 정서가 유발된 상황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7정의 상대적 경험 빈도를 추론할 수 있다. 7정 가운데 분노(1116), 미움(1037), 슬픔(1033) 등으로 부정적 정서들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두려움(640), 기쁨(526), 사랑(519)의 순서였고, 욕심(233)은 발생 상황을 기술한 빈도가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7정 각 정서가 경험되는 상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7정 가운데 기쁨은 선물을 주고 받을 때(82), 이해해 줄 때(69), 일이나 공부 잘 할 때/능력있을 때(56), 사랑한다고 할 때/사랑할 때(52), 승진할 때(51)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로부터 타인이나 자기 행동의 결과가 개인이 지니는 목표나 기대에 합치되는 상황에서 기쁨이 자주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서구 학자들이 정서 목표 혹은 기대에 합치될 때 기쁨이 경험된다는 보고와 일치된다(예. Lazarus, 1991). 그러나 기쁨을 유발한 상황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선물 주고 받기(82), 능력이 있을 때(56), 승진(51)에서 보는데로 이 정서는 도덕적 기준과는 무관한 상황에서도 개인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화남, 노함)는 상대가 무시할 때(211), 거짓말할 때(131), 외도할 때(130), 배신할 때(82), 속였을 때(65), 약속을 어겼을 때(64) 자주 발생한다. 이로부터 의도를 지니고 타인이 개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어겼을 때 분노가 자주 유발됨을 알 수 있다. 타인이 사회의 당위적 기준을 어겼을 때 분노가 경험된다는 가설은 서구에서도 이미 Averill(1982)에 의해서 제안되어서 반복해서 지지된 바 있다(Lazarus, 1991).

슬픔은 아플 때(220), 죽을 때(128), 타인이 무시할 때(76), 울 때(62), 이해해주지 못할 때(61), 일, 공부 못할 때/능력없을 때(50), 거짓말할 때(48), 배신할 때(40), 힘들어할 때(36) 자주 경험된다. 이 결과로부터 통제불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때나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 때 자주 유발된다고 지적하였다.

두려움은 상대가 화낼 때(110), 폭력을 사용할 때(94), 때릴 때(48), 싸울 때(44), 자신이 잘못했을 때(35), 외도할 때(32), 자신이 거짓말할 때(31), 무시할 때(28) 자주 경험되었다. 이 결과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두려움이 자주 경험되지만, 잘못, 거짓말, 외도처럼 비록 상대적 빈도는 낮으나 당위적 기준과 어긋났을 때도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랑을 유발하는 상황으로는 이해해줄 때(77),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들을 때(74), 선물줄 때(48), 말을 잘 들을 때(30), 자리를 양보할 때(28), 용돈줄 때(25)가 자주 지적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기쁨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조건에서 애정을 자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미움은 타인이 무시할 때(183), 거짓말할 때(106), 외도할 때(102), 약속을 어겼을 때(78), 잘난 척할 때(48), 부정축재/비리 등을 저지를 때(45),

말 안들을 때(41), 배신할 때(41), 속였을 때(40) 자주 경험되었다. 이로부터 미움은 개인의 목표나 기대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발생 빈도가 높지만, 당위적 기준에 어긋났을 때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욕심을 유발하는 상황들은 다른 정서들보다 빈도가 매우 낮게 보고되었는데, 일, 공부잘할 때/능력있을 때(36), 사랑할 때(17)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적 목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행동적 사건에서 욕망이 자주 유발됨을 시사한다.

위의 해석을 근거로 7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7정은 타인이나 자기 행동의 결과로 개인의 목표나 기대에 합치될 때 유발되는 정서들(기쁨, 사랑)과 목표나 기대에 합치되지 않을 때 유발되는 정서들(분노, 미움, 두려움, 슬픔)이 포함된다. 그러나 7정들 가운데 비교적 발생 빈도가 낮지만 당위의 기준이 침해되거나(분노, 슬픔, 두려움) 이상적 친사회적 기준에 합치되는 조건에서도(사랑, 기쁨) 유발되는 정서들도 있다.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7정이 개인적 목표나 기대에 근거를 둔 기준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지만 당위적이고 이상적 기준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다고 본 가설 II가 지지된다.

4단과 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의 차이

4단과 7정을 유발하는 상황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직접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표 2의 우측에 상황별로 4단7정 정서의 유발 빈도를 차이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4단7정 정서를 유발하는 빈도가 높은 39개 상황들 가운데 22개 상황들에서 4단과 7정의 경험을 유발한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가운데 전체 빈도가 70이상인 19개 정서를

중심으로 4단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자. 4단이 7정보다 높은 유발 빈도를 보인 상황을 전체 빈도 순서대로 보면, ① 아플 때, $\chi^2(1, N = 363) = 20.76, p < .001$, ② 힘들어할 때, $\chi^2(1, N = 363) = 23.51, p < .001$, ③ 잘못했을 때, $\chi^2(1, N = 363) = 19.25, p < .001$, ④ 술주정할 때, $\chi^2(1, N = 363) = 4.32, p < .05$, ⑤ 독단적/고집부릴 때, $\chi^2(1, N = 363) = 3.88, p < .05$ 였다.

이 결과를 표 2와 연결지어 보면 통제 불가능한 원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측은, 성격 요인이나 통제 가능하지만 의도적 당위에 어긋난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혐오에서 주로 4단이 7정보다 우세하게 경험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상황에서 4단이 7정보다 우세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은 4단이 7정보다 기준에 합치되거나 불합치될 때 당위적 목표를 경험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7정이 4단보다 높은 유발 빈도를 보인 상황들을 전체 빈도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무시할 때, $\chi^2(1, N = 363) = 29.40, p < .001$, ② 거짓말할 때, $\chi^2(1, N = 363) = 13.66, p < .001$, ③ 약속을 어겼을 때, $\chi^2(1, N = 363) = 12.61, p < .001$, ④ 배신할 때, $\chi^2(1, N = 363) = 8.64, p < .01$, ⑤ 사랑한다고 할 때/사랑할 때, $\chi^2(1, N = 363) = 6.24, p < .05$, ⑥ 선물줄 때, $\chi^2(1, N = 363) = 9.47, p < .01$, ⑦ 이해해줄 때, $\chi^2(1, N = 363) = 20.38, p < .0001$, ⑧ 일, 공부 잘 할 때/능력있을 때, $\chi^2(1, N = 363) = 22.45, p < .001$, ⑨ 이해해주지 못할 때, $\chi^2(1, N = 363) = 22.10, p < .0001$, ⑩ 죽을 때, $\chi^2(1) = 27.56, p < .0001$, ⑪ 화낼 때, $\chi^2(1, N = 363) = 12.65, p < .0001$, ⑫ 폭력을 사용할 때, $\chi^2(1, N = 363) = 18.13, p < .0001$, ⑬ 속였을 때, $\chi^2(1, N = 363) = 8.93, p < .001$, ⑭ 때릴 때, $\chi^2(1, N = 363) = 6.61, p < .05$ 였다.

이 결과들 가운데 ①, ②, ③, ④의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은 7정 정서일 때 빈도가 매우 높아서 4단의 유발 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상황들은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행한 부정적 행동이 유발된 조건들이다. 이 상황들에서는 7정과 아울러 4단 가운데 부정적 정서들인 수오와 시비의 정서 경험을 유발한 빈도도 매우 높았다. 한편 이 결과는 7정 가운데 부정적 정서가 노함, 미움, 두려움, 슬픔의 네 개로 4단의 부정적 두 정서보다 많았기 때문에 빈도가 크게 높아진데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⑤, ⑥, ⑦, ⑧은 개인의 목표나 기대에 합치되는 상황이다. ⑩은 슬픔, ⑫, ⑭는 신체적 위협이 있는 조건인데, 두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다.

결론적으로 4단과 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의 빈도를 직접 비교했을 때 볼 수 있는 특징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정은 4단보다 개인적 목표나 기대에 합치되거나 불합치된 조건에서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이와 아울러 당위적 기준에 합치되거나 불합치된 상황에서도 많이 유발되었다. 반면, 4단은 7정보다 이상적 당위를 기준으로 볼 때 도리에 합치되거나 불합치된 상황들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 연구의 가설Ⅲ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 : 대인관계의 유형 및 도리의 합치 여부에 따른 4단7정 정서의 선악판단

연구 1에서는 4단과 7정 정서가 각각 우세하게 경험되는 상황들이 어떤 특징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유학에서 강조하는 다섯가지 유형의 대인관계들로서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봉우 관계에서 유학의 당위적 기준으로 볼 때 도리에 합치하거나 합치하지 않은 행동적 사건이 유발될 때 4단과 7정 정서를 각각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대인관계에 따라서 4단7정의 각 정서들을 유발하는 상황도 다르고 대인관계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4단7정이 경험되는 정도가 달라짐을 알았다. 그러므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가설의 검증 결과를 해석할 때 필자가 제시한 관점과 일치되는 결과가 정서 경험에 대한 선악판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서 연구 2에서는 종속변인을 선악판단으로 확장하여 실험을 통해서 4단이 7정보다 선하다고 평가된다는 기본 가설들을 검증한다.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 당위의 도리라고 가정하는 기준에 합치되거나 배치되는 행동적 사건이 각각 발생한 조건에서 4단7정의 각 정서들을 경험하게 되면 선악 차원에서 어느 학자의 기본 가설들을 지지하는지 검증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유학의 오륜(五倫)에서 주장하는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거나 어긋나는 상황에서 4단7정의 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선악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단7정론에서 퇴계와 율곡이 제안한 가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계의 이론에서는 인간이 생래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리를 지향하는 심적 지향성이 우세하면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4단은 7정보다 선하게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선악판단에서 4단7정의 주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와 달리 율곡의 가설에 따르면 4단도 7정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악

판단이 달라진다고 예언된다. 다시 말해서 4단과 7정 주효과가 아니라 행동이 발생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4단7정의 경험에 대한 선악판단이 달라진다고 주효과를 예상한다.

더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퇴계의 4단7정의 주효과 가설이나 율곡의 도리합치 주효과 가설은 실제로는 4단7정과 도리합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효과의 단면에서 강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관점과 일치되게 4단7정과 도리합치 여부의 두 변인들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형태로 선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선악판단에서 4단7정 및 도리합치 여부의 두 변인들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면 퇴계와 율곡의 이론에서 모두 상호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 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각각 경험되는 4단7정 정서들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내면 각 조건에서 우세하게 경험된 정서들이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학에서 4단7정론이 대두되고 전개된 배경에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단은 순수하게 선한 윤리적 기능을 하지만 7정은 상황의 합치성에 따라서만 선한 윤리적 기능을 한다는 가정이 밀박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도출되는 가설들을 명세화하여 검증하게 되면 이 가설들의 타당성을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필자(1996, 2000)의 선행연구(연구 2)에서는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대인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4단7정의 경험이 선악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본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9점 척도로 평가한 전체

평균으로 볼 때 4단(5.72)이 7정(4.83)보다 선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4단 가운데 수오 정서인 수치(4.57)와 타인혐오(2.46)는 각각 다소 악하거나 상당히 악한 정서로 평가되었으며, 7정 가운데 기쁨(7.29)과 사랑(8.16)은 매우 선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연구 2에서도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이 가설을 반복해서 검증한다(4·7 평가차이가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이 결과를 논의할 때 장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에서 주장하는 당위적 도리에 합치하거나 합치하지 않는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조건에서 경험하는 4단7정을 선악의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을 통해서 필자가 기대하는 바를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선행연구에서 4단 가운데 수오는 악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학의 관점을 적용해 보면 4단 가운데 수치나 혐오는 당위적 도리에 어긋난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험되면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기쁨은 선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 7정 가운데 기쁨이나 애정은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선으로 판단되지만 불합치된 상황에서 경험되면 악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한 정서로 평가되는 기쁨이나 애정은 물론이고 7정은 모두 행동적 사건을 유발한 상황이 당위적 도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악의 판단이 유의하게 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다(가설 I: 7정 도리합치 평가차이가설).

앞에서 유학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가설 명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단 가운데 측은, 사양, 및 시비는

유학의 기준으로 볼 때 친사회적 지향성을 지닌 정서들로 가정되므로 행동적 사건을 유발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선하다고 평가되고, 수오는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될 때만 선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조건들에서 경험하는 4단 정서들은 모두 선하다고 판단된다(가설 II-1: 4단 순선가설).

또한 유학에서 4단 가운데 측은, 사양, 및 시비는 어느 조건에서나 친사회적 지향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므로 정서를 유발한 사회적 상황이 당위적 도리에 부합되는지 상관없이 항상 선하다고 평가된다(가설 II-2: 4단 측은, 사양, 시비의 방계가설).

위의 두 가설로부터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른 선악 평가치의 차이는 4단보다 7정에서 크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가설 III-1: 4단과 7정의 상대적 평가차이가설). 그러나 수오는 당위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발되었을 때만 선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위적 기준에 부합된 상황에서 경험될 때보다 유의하게 선한 정서라고 평가된다(방계가설 III-2: 4단 수오의 방계가설).

한편, 7정은 4단과 달리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 상황에서 선한 정서로 평가되지만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악한 정서로 평가된다. 따라서 7정 정서들은 사회적 행위가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가설 IV: 7정 도리 합치차이가설).

본 연구 2에서는 이 가설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게 된다. 첫째, 4단7정 정서들이 특정한 대인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유학에서 강조하는 다섯 유형의 대인관계들

가운데 특정 대인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4단7정 경험이 선악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 4단7정의 경험 빈도는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각 정서를 유발한 상황을 보면 질적 성질도 달랐고, 각 정서의 경험을 유발한 빈도도 달랐다. 이 현상은 대인관계의 유형별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기대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목표나 기대를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해석을 적용하여 연구 1에서 얻은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4단과 7정을 유발한 상황들 가운데 도리에 합치되거나 혹은 합치되지 않은 조건에서 유발된 정서들의 빈도가 달리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추론하면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4단과 7정의 정서들은 선악의 측면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둘째, 필자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설계에서도 고려한 또 다른 요인은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의 차이이다. 필자의 연구(1996, 10쪽, 2000, 153쪽)에서 본 바와 같이 선악판단은 개인적 쾌/불쾌 혹은 호/불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1996, 2000, 연구 2, 3)에서 두려움은 개인선의 관점보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더욱 나쁜 정서로 평가되고, 슬픔은 개인선의 관점보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나쁜 정서로 평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유학에서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관점을 중시하는 점에 유의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서 4단7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명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앞에서 이 연구의 연구설계에 관해서 설명한

바를 요약해 보면 대인관계의 유형별로 당위적 기준에 부합되거나 되지 않는 행동적 사건에 당면하여 4단7정을 경험했을 때 선악을 판단하는 두 가지 선악의 관점에 따라서 선악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루게 된다.

연구 방법

절차

다섯가지 대인관계의 유형들 가운데 특정한 대인관계를 행위자와 대상으로 제시하고 각 대인관계에서 당위적 도리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조작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각 상황에서 경험되는 4단7정의 각 정서가 개인선이나 공동선의 관점 가운데 한 관점에서 판단할 때 얼마나 선한지 평가하도록 했다.

실험설계

(A) 대인관계유형(5), (B) 행위자-대상(2), (C)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행동적 사건(2)에 따라서 상황을 조작하고, (D) 정서주체로서 행위자와 대상(2)이 (E) 개인선이나 공동선의 관점(2)에서 4단7정 각 정서를 평가했다. 따라서 위의 독립변인 순서대로 대체로 $A \times (B) \times C \times (D) \times E$ 가 $5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2$ 의 80개 상황이 되는 혼합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이 실험설계에서 () 안에 표시된 독립변인들은 피험자내 변인임을 의미한다. 각 조사 대상에게 10개 상황을 제시하고 개인선이거나 공동선의 관점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여 4단7정 각각의 선악 수준을 매우 악하년부터 매우 선하다까지 9점 척도에 평가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평정치가 클수록 선하다고 평

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인들로 조작된 상황을 제시할 때 각 독립변인들의 제시에 따르는 순서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층소설계(latin square design)와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각 상황들 제시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대인관계유형은 연구 1에서 사용된 남자-여자 관계를 제외하고 군신관계는 현대 시민사회에 적합하게 대통령-국민관계로 바꾸고, 부모-자녀, 남편-아내, 어른-어린이, 친구-친구 관계의 다섯 대인관계가 사용되었다. 행위자×대상은 참여자의 수를 반씩 나누어서 위의 순서대로 제시되거나 바꾸어서 순서에 따른 효과가 상쇄되도록 제시되었다.

도리에 합당하거나 혹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적 사건은 각 대인관계별로 중요한 내용을 달리 하여 조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국민의 관계에서는 각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을 지켰거나 혹은 지키지 않은 조건으로 조작하였고, 또한 국민-대통령의 관계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잘 지켰거나 지키지 않은 조건으로 조작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는 각각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았는지와 자녀가 부모를 잘 모셨는지 여부로 조작했다. 남편-아내의 관계에서는 각각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에게 충실했는지 여부로 조작했다. 어른-어린이 관계에서는 어른이 어린이를 존중해 주거나 어린이가 어른을 공경했는지 여부로 조작했다. 친구-친구 관계에서는 친구 AB가 친구로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지켰는지 여부로 조작했다. 정서주체는 행위자가 4단7정의 각 정서를 경험하거나 행위의 대상이 정서를 경험한 조건으로 조작했다.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 가운데 개인선의 판단에서는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각 상황이 얼마나 선하거나 악한지 선악을 평가했고, 공동선의 판단에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룬다는 사회공동체를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선하거나 악한지 평가하도록 했다.

질문지의 보기로서 대인관계의 유형 가운데 대통령-국민 관계에서 행위자를 대통령으로 제시하여 대통령이 행위의 대상인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적 도리에 합당하게 행동했을 때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느낀 측은 정서를 개인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대본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을 잘 지켰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측근한 정서를 느꼈다면 당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서 경험이 얼마나 선하다고 평가합니까?”

이 대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건에서 4단 7정의 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개인선의 관점에서 선악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개인선은 개인적으로 극히 악하다(-4)부터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0)을 거쳐서 개인적으로 극히 선하다(+4)까지 9점 척도에 평정했다. 공동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사회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극히 악하다(-4)부터 바람직한 사회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극히 선하다(+4)까지 9점 척도에 평정했다. 측정된 -4 ~ +4점수는 1 ~ 9의 9점척으로 옮겨서 통계 처리했다. 그러므로 득점이 클수록 선하다고 평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사의 참가자

연구 1에서 조사의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제시한 논리에 따라서 4단 7정론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서울, 대구, 대전, 진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1, 2학년 학생 808명이 참가하였다. 그 가운데 개인선의 평가자는 414명이었고, 공동선의 평가자는 394명이었다.

조사의 실시

정규 강의시간을 할애해서 실시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당위적 도리의 합치 여부에 따른 4단7정 정서의 선악 평가

유학의 당위적 도리에 합치된 상황인지를 구별하여 4단7정 각 정서들을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정한 선악 평가치의 평균은 표 3과 같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대인관계유형과 행위주체 및 정서주체 별 평균치가 제외되고, 이 제외된 변인들의 효과에 관해서는 4단7정 정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논의할 때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4단과 7정에 대하여 선악을 판단했을 때 4단(5.14)은 7정(4.68)보다 선한 정서로 평가되었다(4단7정 주효과, $F(1, 8050) = 612.84, p < .001$). 이 결과는 4단이 7정보다 선한 정서라고 판단된다는 4·7 평가차이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4단과 7정 경험을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한 결과에서는 선유형×4단7정의 2원 상호작용 효과($F(1, 8050) = 31.74, p < .001$), 도리합치×4단7정의 2원 상호작용 효과도

표 3.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른 4·7 정서의 선악 평가치 평균(표준편차)

선유형	측은	수오	사양	시비	4단 합계	기쁨	노함	슬픔	두려움	애정	미움	욕심	7정 합계
개인 선													
도리 합치	5.08 (1.61)	3.67 (1.58)	6.02 (1.25)	5.83 (1.58)	5.15 (0.89)	6.63 (1.41)	3.63 (1.61)	4.32 (1.48)	4.27 (1.43)	6.70 (1.47)	3.76 (1.64)	4.21 (1.57)	4.79 (0.78)
도리 불합치	5.31 (1.54)	4.40 (1.39)	5.38 (1.30)	5.36 (1.72)	5.11 (0.86)	4.82 (2.00)	4.31 (1.69)	5.14 (1.49)	4.73 (1.34)	5.59 (1.75)	4.26 (1.65)	4.36 (1.56)	4.75 (0.85)
합계	5.19 (1.58)	4.03 (1.53)	5.71 (1.32)	5.59 (1.67)	5.13 (0.87)	5.74 (1.95)	3.96 (1.68)	4.72 (1.54)	4.50 (1.40)	6.15 (1.71)	4.01 (1.66)	4.29 (1.57)	4.77 (0.82)
공동 선													
도리 합치	4.95 (1.66)	3.32 (1.53)	6.14 (1.30)	6.04 (1.83)	5.11 (0.92)	6.97 (1.53)	3.22 (1.58)	4.05 (1.51)	3.81 (1.57)	6.95 (1.48)	3.40 (1.72)	3.94 (1.62)	4.63 (0.80)
도리 불합치	5.38 (1.57)	4.11 (1.49)	5.44 (1.47)	5.87 (1.91)	5.20 (0.90)	4.62 (2.21)	4.00 (1.76)	5.03 (1.48)	4.40 (1.52)	5.59 (1.88)	4.01 (1.75)	4.04 (1.55)	4.53 (0.85)
합계	5.17 (1.63)	3.72 (1.56)	5.79 (1.43)	5.95 (1.87)	5.16 (0.91)	5.77 (2.24)	3.62 (1.72)	4.56 (1.57)	4.11 (1.57)	6.25 (1.83)	3.72 (1.76)	3.99 (1.59)	4.58 (0.83)
전체													
도리 합치	5.02 (1.64)	3.50 (1.56)	6.08 (1.28)	5.93 (1.71)	5.13 (0.91)	6.80 (1.48)	3.43 (1.61)	4.19 (1.50)	4.05 (1.51)	6.82 (1.48)	3.59 (1.69)	4.08 (1.60)	4.71 (0.80)
도리 불합치	5.34 (1.55)	4.26 (1.45)	5.41 (1.39)	5.61 (1.83)	5.15 (0.88)	4.72 (2.11)	4.15 (1.73)	5.09 (1.49)	4.56 (1.44)	5.59 (1.82)	4.14 (1.70)	4.20 (1.56)	4.64 (0.86)
전 체	5.18 (1.60)	3.88 (1.55)	5.74 (1.38)	5.77 (1.78)	5.14 (0.89)	5.75 (2.10)	3.79 (1.71)	4.64 (1.56)	4.31 (1.50)	6.20 (1.77)	3.87 (1.72)	4.14 (1.58)	4.68 (0.83)

유의했다, $F(1, 8050) = 6.42, p < .001$. 그러나 이 두 결과는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4단과 7정의 평가치가 달라져서 3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선유형 $\times$ 도리합치 여부 $\times$ 4단7정의 3원 상호작용, $F(1, 8050) = 5.51, p < .05$), 이 3원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해석하기로 한다. 이 3원 상호작용 효과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으로부터 개인선의 판단에서는 도리합치 상황과 도리불합치 상황에서 4단과 7정 사이에 모두 일정한 정도의 작은 차이(0.36)를 보이지만 공동선의 판단에서는 도리합치 상황보다(0.48) 불합치 상황에서 4단과 7정 사이에 평가치의 차이(0.67)가 더 커짐을 볼 수 있다. 즉, 도리합치 조건과 달리 도리불합치된 상황에서 공동선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개인선의 평가보다 4단은 다

표 4. 선유형, 도리합치 여부, 및 정서주체에 따른 4·7 정서의 선악 평가치 변량분석

변량 출처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선유형(A)	1	14.08	14.08	19.33***
도리 합치(B)	1	1.38	1.38	1.90
정서 주체(C)	1	28.82	28.82	39.57***
A×B	1	0.64	0.64	0.87
A×C	1	0.88	0.88	1.21
B×C	1	25.09	25.09	34.44***
A×B×C	1	0.10	0.10	0.14
4·7 정서(D)	1	446.3	446.38	612.84***
A×D	1	23.12	23.12	31.74***
B×D	1	4.68	4.68	6.42*
A×B×D	1	4.01	4.01	5.51*
C×D	1	3.52	3.52	4.84*
A×C×D	1	1.36	1.36	1.87
B×C×D	1	1.20	1.20	1.65
A×B×C×D	1	0.34	0.34	0.46
오차	8050	5863.51	0.73	

주. * $p < .05$ ** $p < .01$ *** $p < .00$

소 더 좋게 평가되고 7정은 더 나쁘게 평가되어서 상대적으로 도리불합치 조건에서 4단과 7정 평가치의 차이가 더 크다.

다음으로 4단과 7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4단과 7정 범주로 나누어서 각각 정서에 대한 선악 평가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분석은 통계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선유형×도리합치×4·7의 3원 상호작용효과를 4단과 7정 조건으로 나누어서 각각 변량분석한 단순상호작용 효과에 해당한다. 4단과 7정 정서에 대한 선악 평가치를 나누어서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도리에 합치되거나 불합치된 상황에서 각각 얻은 선악 평가치들을 합쳐서 4단7정 각 정서들의 평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5.0 이상의 평가치를 보여서 선하다고 평가된 정서들로는 사단 가운데 시비(개인선 5.59, 공동선 5.95), 사양(5.71, 5.79), 측은(5.19, 5.17)이 포함되고, 7정 가운데 기쁨(5.74, 5.77)과 애정(6.15, 6.25)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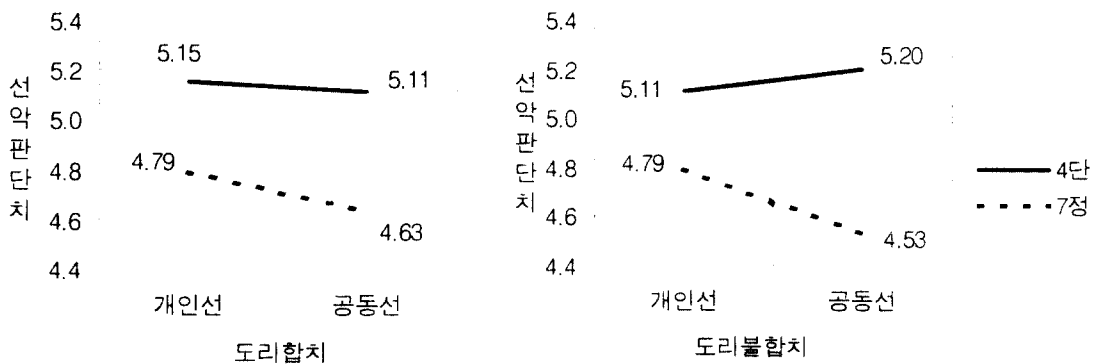


그림 2. 선유형, 도리합치 및 4단7정 평가의 3원 상호작용

표 5. 4단과 7정별로 본 변량분석 결과

4단				변량 출처	7정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1	1.21	1.21	1.55	선유형(A)	1	33.60	33.60	51.22***
4	30.65	7.66	9.81***	대인관계(B)	4	29.64	7.41	11.30***
4	21.14	5.29	6.77***	A×B	4	6.24	1.56	2.38*
1	0.41	0.41	0.53	도리 합치(C)	1	5.50	5.50	8.38**
1	3.08	3.08	3.94*	A×C	1	0.84	0.84	1.28
4	10.78	2.69	3.45**	B×C	4	3.90	0.97	1.48
4	2.92	0.73	0.93	A×B×C	4	1.78	0.45	0.68
1	5.72	5.72	7.32**	정서 주체(D)	1	25.67	25.67	39.13***
1	2.25	2.25	2.88	A×D	1	0.02	0.02	0.03
4	3.20	0.80	1.03	B×D	4	0.62	0.15	0.24
4	0.97	0.24	0.31	A×B×D	4	0.62	0.16	0.24
1	7.97	7.97	10.21**	C×D	1	18.60	18.60	28.36***
1	0.04	0.04	0.05	A×C×D	1	0.52	0.52	0.79
4	3.96	0.99	1.27	B×C×D	4	4.67	1.17	1.78
4	1.89	0.47	0.61	A×B×C×D	4	0.66	0.16	0.25
3993	3118.58	0.78		오차	3993	2619.31	0.66	

주. * $p < .05$ ** $p < .01$ *** $p < .001$

필자(1996, 2000)의 선행연구에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과 도리합치도를 고려하지 않고 4단7정 정서의 선악 평가치로 얻은 값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슬픔(4.72, 4.56)이 좋게 평가되지 않고 중립에 가까운 점만 다르고, 그 외에는 두 연구의 결과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다(선행연구의 일반적 평가치, 개인선 5.79, 공동선 4.25). 다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필자(1996, 2000)의 선행연구에서 상황 맥락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악을 평가했을 때와 비교해서 4단7정 정서들이 덜 극단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이 유발된 상황이 도리에 맞는지를 구별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4단과 7정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저 5.0 이상의 평가치를 보여서 선하다고 평가된 정서들만을 살펴보면 4단 가운데 측은, 사양, 시비는 도리의 합치성에 관계없이 모두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7정 가운데 선하다고 평가된 기쁨은 도리가 합치된 상황(6.80)에서 선하다고 평가된 바와 달리 불합치된 상황(4.72)에서는 중립적으로 평가되어서 도리합치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4단과 7정 가운데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선악 평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정서들이 4단과 7정의 범주별 특징을 잘 보여준다. 4단의 수오에서 수치와 타인 혐오는 모두 도리에 합치된 상황에서 경험했을 때는 상당히 악한 정서로 평가되었다(수치; 개인선 3.98, 공동선 4.29; 타인 혐오, 개인선 3.88, 공동선 3.40). 그러나 도리에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된 수치심은 비록 선하다고 평가된 값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평가되지도 않아서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개인선 4.94, 공동선 4.82). 이 결과로부터 4단 가운데 수오는 도리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에서만 선에 가까운 가치 중립적 경험으로 평가되고, 측은, 사양, 시비, 수오는 모두 도리의 합치여부에 상관없이 선한 정서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방계가설 III-2: 4단 수오의 방계가설을 지지한다.

이 해석은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밀받침된다. 4단 정서들의 평가치를 함께 다루었을 때 상황이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체 선악 평가치의 평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도리합치 주효과 $F(1, 3993) = 0.53, n.s.$). 이 결과는 가설 II-1의 4단 순선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7정의 평가에서는 상황이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 합치되지 않을 때보다 선하다고 평가되었다($F(1, 3993) = 8.38, p < .01$). 이는 가설 IV의 7정 도리합치 평가차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단과 달리 7정에서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치의 차이를 보인 정서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애정과 기쁨은 물론이고, 노함(개인선, 합치 3.63, 불합치 4.31; 공동선, 합치 3.22, 불합치 4.00), 슬픔(개인선, 합치 4.32, 불합치 5.14; 공동선, 합치 4.05, 불합치 5.03), 두려움(개인선, 합치 4.27, 불합치 4.73; 공동선, 합치 3.81, 불합치 4.40), 미움(개인선, 합치

3.76, 불합치, 4.26; 공동선, 합치 3.40, 불합치 4.01)에서도 모두 합치도에 따라서 평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 수준에 따라서 4단과 7정에 대한 선악 평가치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 사실은 4단7정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4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위적 도리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7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위적 도리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치가 달라졌다. 이 결과는 4단7정의 범주에 속한 대부분의 정서들로 볼 때 4단은 순선이지만 7정은 선악이 구별된다는 퇴계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가설 I, 가설 II-1, 및 IV의 7정 도리합치차이 가설 지지).

한편 율곡은 4단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악한 정서가 되는 경우가 있고 7정 가운데도 역시 경험하는 상황이 도리에 합치되면 선한 정서가 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 가운데 비록 4단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악하다고 평가되는 정서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단 가운데 도리에 합치되는 행위에 대해서 수오 정서를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 조건에서 타인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면 악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7정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선하다고 평가되는 정서도 있다는 율곡의 가설을 지지하는 예로는 본 연구에서 도리에 합치되는 행위에 대해서 기쁨이나 애정을 느끼고 도리에 불합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퇴계의 가설과 율곡의 가설은 상호 모순된다고기보다 상호 보완적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퇴계의 이론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4단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상황이 도리에 합치

되는지에 상관없이 7정보다 4단이 경험되면 선하다고 평가됨으로써 퇴계의 기본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인관계의 유형과 정서주체에 따른 4단7정의 선악 평가

대인관계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행위자-대상 가운데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4단7정의 선악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표 3에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두 변인에 관련된 평균(표준편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표 4과 표 5의 변량분석 결과와 여기에 실리지 않은 평균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다룬다.

먼저,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4단7정의 선악 평가치가 서로 달랐다. 이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는데, 이 현상은 4단($F(1, 3993) = 9.81, p < .001$)이나 7정($F(1, 3993) = 11.30, p < .001$)에서 모두 같았다. 4단7정 정서의 선악 평가치를 대인관계의 유형별로 보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서는 4단과 7정간 평가치 평균의 차이가 0.33에 불과하여 유의하지 않지만, 친구관계에서는 0.44였으며, 장유관계(0.59), 부자관계(0.50), 및 대통령-국민관계(0.50)에서는 그 차이가 모두 유의했다.

이 결과로부터 특히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사이에 세력이나 영향 관계가 불균형된 상하관계에서 7정보다 4단을 더 선한 정서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세력이나 영향력의 차이가 큰 조건에서는 4단이 7정보다 선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이 해석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반복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에서 행위주체와 대상이 경험하는 4단7정의 평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로서 경험한 4·7 정서(4단 5.10, 7정 4.59)는 행위의 대상으로 느낀 정서(4단 5.18, 7정 4.76)보다 선하다고 평가했다($F(1, 8050) = 39.57, p < .001$). 행위자와 도리합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므로 행위주체의 주효과는 이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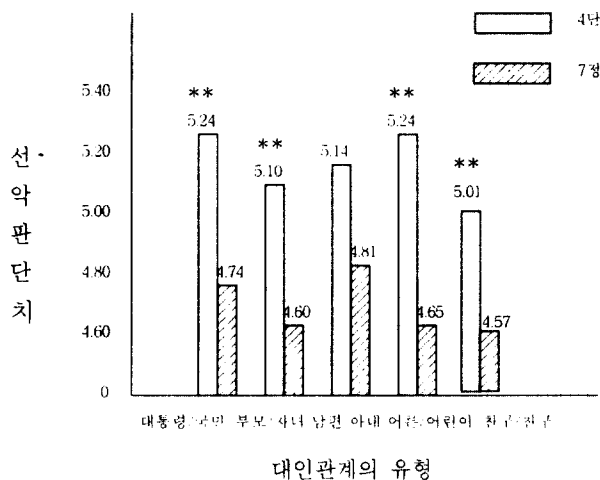


그림 3.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른 4·7 평가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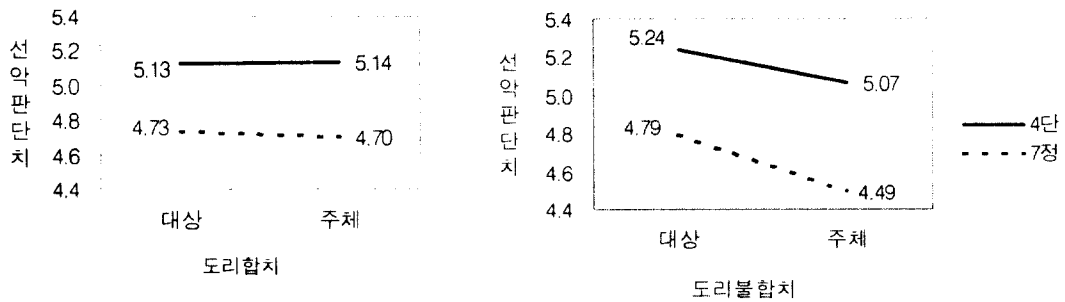


그림 4. 주체와 도리합치에 따른 4·7정서의 평가

그림 4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리에 합치되게 행동한 행위의 주체가 4단7정을 경험하면 선하다고 평가하고, 상대의 행동이 도리에 합치되지 않을 때 행위의 대상으로서 4단7정을 경험하면 다소 나쁜 정서로 평가함을 볼 수 있다.

4단7정 각 정서들에 대한 선악평가치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앞에서 4단과 7정을 각 범주로 묶었을 때 대인 관계, 선유형, 도리합치,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표 5 참조). 4단과 7정이 선악과 관련된다는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다루려면 4단과 7정을 범주로 묶었을 때 나타나는 선악 평가치의 차이를 비교하는 일에 못지않게 장기적으로는 각 정서에 대한 연구도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4단7정에 포함된 각 정서들에 대한 선악 평가치가 선유형, 도리합치,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표 6에는 각 정서별 선악 평가치를 변량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F 값으로 제시했다. 이 표 가운데 정서주체에 따른 평가치의 차이값을 산출한 자료는 양자관계에서 사건의 행위자나 대상이 각각 정

서 주체로서 경험한 정서들을 평가한 값만을 사용해서 얻었다. 먼저 4단 정서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7정 정서들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4단 정서들에 대한 선악 판단치의 특징

표 3과 표 5와 각 정서를 세부 분석한 표 6으로부터 개별 정서들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단 가운데 측은은 전체 평가치(5.18)를 보면 선한 정서로 평가되었는데, 도리합치 여부, 도리합치와 선유형의 상호작용, 그리고 선유형과 정서주체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측은은 도리에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되면(5.34) 도리에 합치된 상황(5.02)보다 오히려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도리합치와 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 보면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의 차이가 생긴 출처를 알 수 있다. 측은은 개인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와 달리(도리합치 5.08, 도리불합치 5.31),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도리합치 상황(4.95)보다 도리불합치 상황(5.38)에서 더 선하다고 평가된데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측은이 도덕적으로 불합치된 조건에서 경험되면 사회적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선한 정서로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4단7정론의 주장 가운데 측은이 상황에 관계없이 선한 정서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수오는 상대적으로 악한 정서로 평가되었는데 (3.88) 이 정서 역시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다. 즉, 공동선의 관점(3.72)보다 개인선의 관점(4.03)에서 덜 악하다고 평가되었고, 도리가 합치된 상황(3.50)보다 도리에 불합치되는 조건(4.26)에서 경험될 때 덜 악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도 수오 경험이 선한 정서라고는 평가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도리불합치된 상황이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행동적 사건으로 구상될 경우에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수오의 경험이 선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수오 정서의 경험이 선하다고 평가되는 제한된 조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사양은 선하다고 평가된 정서(5.74)인데, 도리합치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측은과 달리 사양은 도리에 합치된 상황(6.08)에서 경험되면 도리불합치 상황(5.41)보다 더 선하다고 평가되었

다. 이 결과를 측은과 비교해 보면,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사양과 측은이 모두 유사하게 선하다고 평가되지만, (사양 5.41, 측은 5.34),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는 사양(6.08)이 측은(5.02)보다 더 선하다고 평가된다. 이 결과로 볼 때 측은이 특히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순기능을 하는 바와 대조되게 사양은 도리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모두 순기능을 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시비 역시 전체적으로 선하다고 평가된 정서 (5.77)이다. 그러나 선유형, 도리합치 여부, 및 정서 주체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치가 다양하게 달라진다. 이 현상을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자.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도리에 합치된 상황에서는 개인선(5.83)과 공동선(6.04)의 평가치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선하다고 평가되었으나, 도리에 불합치된 상황에서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5.87)보다 개인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5.36) 선한 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이 결과는 도리불합치 상황에 당면해서 개인의 관점에서 시비를 경험할 경우 공동선의 관점에서 시비를 경험할 때보다 선한

표 6. 선유형, 도리합치, 및 정서주체에 따른 선악 평가치의 변량분석 결과 (F 값)

측은	수오	사양	시비	변량원	기쁨	노함	슬픔	두려움	애정	미움	욕심
0.41	46.85***	4.78	43.41***	선유형(A)	1.56	47.10***	15.32***	72.06***	5.90*	32.96***	35.79***
41.77***	262.70***	255.32*	34.12***	도리합치(B)	1327.65***	196.33***	367.59***	126.14***	558.09***	107.07***	6.54*
4.00*	0.46	0.38	6.97**	A × B	21.63***	0.84	2.74	1.72	6.20*	1.01	0.14
1.48	1.70	0.00	10.63**	정서주체(C)	15.70***	26.72***	2.16	0.17	2.29	22.81***	17.89***
4.63*	0.05	0.08	1.23	A × C	0.04	0.41	0.00	0.15	0.01	0.27	0.40
1.86	0.19	0.16	19.52***	B × C	7.46**	38.96***	1.11	2.31	0.60	36.25***	18.34***
0.06	0.05	0.52	0.96	A × B × C	0.54	0.08	0.04	0.02	2.72	0.00	0.60
5.18	3.88	5.74	5.77	평가치평균	5.75	3.79	4.64	4.31	6.20	3.87	4.14
(1.60)	(1.55)	(1.38)	(1.78)	(SD)	(2.10)	(1.71)	(1.56)	(1.50)	(1.77)	(1.72)	(1.5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기능이 크게 낮아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시비가 선한 정서라고 평가되는 가장 전형의 상황은 도리에 불합치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선의 관점에서 시비를 가리려는 경우이다.

7정 정서들에 대한 선악 판단치의 특징

먼저 7정의 개별 정서를 유발한 상황별로 선악 평가치를 얻은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4단보다 7정의 여러 정서들이 상황 요인들에 의해서 선악판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7정 가운데는 슬픔과 두려움만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의해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졌다.

7정에 속하는 각 정서별로 보면 기쁨은 선한 정서로 평가되지만(5.75), 도리합치 여부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 의존적 정서임을 보여준다.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 기쁨을 경험하면(6.80) 합치되지 않은 조건(4.72)보다 매우 선하다고 평가된다. 이 결과는 도리불합치 조건에서 경험된 기쁨이 개인선(4.82)과 공동선(4.62)에서 모두 악하다고 평가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도리합치 조건에서 경험된 기쁨은 개인선(6.63)보다 공동선(6.97)의 관점에서 모두 매우 선하다고 평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기쁨은 행위자로서 경험할 때(5.86) 대상으로 경험될 때보다(5.64) 더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노함은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는데(3.79) 선유형, 도리합치 여부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진다. 공동선의 관점(3.62)에서 노함을 평가하면 개인선의 관점(3.96)에서 노함을 평가할 때보다 더 나쁜 정서로 평가된다. 이 결과는 노함이 개인보다 사회적 기능에서 더 나쁘다고 평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리에 합치되는 상황(3.43)보다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4.15)에서 노함을 경험하면 덜 나쁘다고 평가된다.

슬픔은 전체적으로 다소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지만(4.64)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슬픔은 공동선의 관점보다(4.56) 개인선의 관점(4.72)에서 덜 나쁜 정서라고 평가된다.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슬픔을 경험하면 다소 선하다고 평가되지만(5.09) 도리에 합치될 때 슬픔을 느끼면 나쁜 정서로 평가된다(4.19).

필자(1996)의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슬픔을 평가했을 때(4.25)와 달리 개인선의 관점에서는 선하다고 평가되었다(5.79).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서로 달리 나타난 이유로는 먼저 연구설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슬픔을 경험한 상황에 관련되는 맥락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지닌 정서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사회적 사건의 도리합치 여부, 행위자, 및 정서주체를 변화시켜서 제시한 구체적 조건에서 슬픔의 경험을 각각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공동선과 개인선의 선유형만 다른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슬픔을 선악의 차원에서 판단한 평가치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참고로 구체적으로 상황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평가치가 달라진 예를 들어보자.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 가운데 친구로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도리에 안맞는 행동을 한 조건에서 슬픔을 경험하면 선한 정서로 평가되어서(5.26) 선행연구에서 얻은 슬픔의 평가치(5.79)에 가까워진다. 반면, 친구관계에서 도리에 합치되지 신의있게 행동한 조건에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되었다(3.99).

두려움은 선악을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다(4.31). 두려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선유형과 도리합치 여부였다. 즉, 두려움은 개인선의 관점(4.50)보다 공동선의 관점에

서(4.11) 평가할 때 더욱 나쁘다고 평가된다. 또한, 도리에 합치된 조건(4.05)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지만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경험하는 두려움(4.56)은 이보다 덜 나쁘다고 평가되었다.

애정은 전체적으로 4단7정 가운데 가장 선한 정서로 평가된다(6.20). 그러나 선유형, 도리합치 여부,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평가치가 달라졌다. 즉, 애정은 개인선(6.15)보다 공동선(6.25)의 관점에서 더 선한 정서라고 평가된다. 또한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애정을 경험한 경우(5.59)보다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 경험할 때(6.82) 매우 선하다고 평가된다. 이 주효과들은 개인선의 판단에서도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판단치가 차이를 보이지만(합치 6.70, 불합치 5.59, 차이 1.11), 공동선의 관점에서는 도리합치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치의 차이가 더 커지는데 기인해서 나타났다(도리합치 6.95, 불합치 5.59, 차이 1.36).

미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는데(3.87) 선유형, 도리합치,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달리 평가된다. 먼저 미움을 개인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4.01)보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3.72) 더욱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다. 또한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미움을 경험할 때(4.14)보다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 미움을 경험하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되었다(3.59). 반면 행위의 대상으로 미움을 경험할 때(3.99)보다 행위자로서 경험한(3.74) 미움이 덜 나쁘다고 평가된다.

욕심 역시 전반적으로 노함과 미움 다음으로 나쁜 정서로서 평가되었다(4.14). 욕심은 개인선(4.29)보다 공동선의 관점(3.99)에서 더 나쁘다고 평가되고,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4.08)보다 합치된 조건(4.04)에서 경험되면 더 나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행위의 대상으로서 경험한 욕심(4.25)보다 행위

의 주체로서 경험한 욕심(4.04)이 더 나쁘다고 평가된다.

4단7정 개별 정서들에 대한 선악 판단치의 특징 요약

4단7정에 속한 정서들을 개별 분석해서 얻은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① 4단과 7정의 모든 정서들이 도리에 합치된 상황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졌다. 이 사실은 모든 정서가 개인의 추구하는 목표나 기대를 기준으로 상황의 합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정서이론들(예, Laganus, 1991)의 가설과 조화되는 결과이다. ②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서 4단7정의 모든 정서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다만 측은, 사양, 및 기쁨에서는 개인선의 관점과 공동선의 관점에 따른 평가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 정서들 역시 선유형과 도리합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이처럼 결론지을 수 있다. ③ 4단 정서들보다 7정 정서들이 여러 상황 변인들에 따라서 평가치가 크게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평가치를 보였다. 이 결론에는 예외가 되는 정서들이 있다. 즉, 4단 가운데 시비는 선유형, 도리합치,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반면, 7정 가운데 슬픔과 애정은 도리합치와 선유형에 따라서만 선악판단이 달라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7정이 4단보다 다양한 상황의 맥락 요인들에 따라서 평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결론이 타당하다면 전체적으로 4단은 대체로 상황에 관계없이 선하다고 평가되지만 7정은 4단보다 상황 의존적이라고 주장하는 퇴계의 가설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의 요약

연구 2는 일상적으로 자주 당면하는 구체적 대인관계에서 도리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 맥락에 당면했을 때 행위주체와 대상이 경험하는 4단7정 정서를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단과 7정에 속한 정서들을 선악 평정한 평가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4단이 7정보다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적어도 다섯 유형의 대인관계, 선을 평가하는 개인선이나 공동선의 관점, 그리고 당위적 도리에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들에서 4단이 나쁘게 평가된 조건은 없었다. 따라서 4단7정 범주로 볼 때 4단은 7정보다 선하며, 7정은 4단보다 악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② 4단과 7정 모두 정서를 경험한 상황이 유학에서 주장하는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졌다. 이 결과는 목표나 기대를 기준으로 당면한 상황을 평가할 때 정서가 유발된다는 정서이론들(예, Lazarus, 1991)과 조화되는 결과이다. 또한 4단7정론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4단 정서들 가운데 수오를 제외하면 4단은 대체로 도리합치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선하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기쁨이나 애정을 제외한 7의 여섯 정서들은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각각 선하거나 악하다고 달리 평가된 점이다. 이 사실은 4단이 순선이고 7정은 선악 미정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③ 4단과 7정 모두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치가 달라진다. 비록 사단 가운데 측은과 사양, 7정 가운데 기쁨은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치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정서들 역시 상황의 도리합치 여부와 선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④ 4단7정을 범주로 비교하거나 개별 정서별로 분석한 자료로부터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은 대체로 4단이 상황과 선악을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서만 선악 평가치가 달라지는 반면에 7정은 다양한 상황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선악 평가치가 달라졌다. 이 결론에 일치되지 않는 결과는 4단 가운데 수오와 7정 가운데 기쁨과 애정에서만 나타난다. 이 세 정서들에 관한 세부 분석 결과는 종합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⑤ 4단7정 정서들을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선악판단해서 얻은 필자(1996)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유형, 도리합치 여부, 및 정서주체 변인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단7정 정서의 평가치에서 중앙집중경향을 보였다. 즉, 상황 맥락을 고려한 본 연구의 평가치들은 선행연구의 평가치들보다 극단적 평가치가 없이 선악의 연속체에서 중립이 되는 근처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필자가 보기에 선행연구에서는 정서를 경험하는 구체적 상황의 맥락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들이 4단7정에 속하는 정서들에 관해서 지니고 있는 원형도식에 근거하여 대표적 간편추론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선악을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상황 맥락을 도입함으로써 4단7정의 일반적 원형 도식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심적 상황모형에 근거하여 선악을 평가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

종합 논의

종합 논의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함께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어서 결과의 해석에서 쟁점을 유발할 수 있는 점들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종합 논의를 위

해서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자료가 표 7에 제시되었다.

4단과 7정을 유발하는 상황의 차이

본 연구 1에서는 4단과 7정의 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기술한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4단과 7정이 어떤 특징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4단은 당위적 도리를 기준으로 이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7정은 당위적 도리와 개인적 목표를 기준으로 이에 합치되거나

나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보면 4단과 7정을 유발한 빈도가 높은 상황들만을 가려냈을 때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1에서 얻은 결과는 필자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가설이 지지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장치 당위적 도리와 개인의 목표를 각각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실험에서 조작했을 때 4단과 7정의 경험하는 빈도가 이 해석과 일치되게 나타나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표 7.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종합

4·7 정서 구분	선행연구 2 (필자, 1996; 2000)		본 연구 2 : 선택 평가					
	개인선	공동선	개인선			공동선		
			계	도리		계	도리	
				합치	불합치		합치	불합치
4단	측은	6.70 6.13	5.19	5.08	5.31	5.17	4.95	5.38
	수오	3.74 3.29	4.03	3.67	4.40	3.72	3.32	4.11
	사양	7.17 7.29	5.71	6.02	5.38	5.79	6.14	5.44
	시비	6.29 6.61	5.59	5.83	5.36	5.95	6.04	5.87
	계	5.98 5.83 (5.80) (5.64)	5.13	5.15	5.11	5.16	5.11	5.20
7정	기쁨	7.00 7.57	5.74	6.63	4.82	5.77	6.97	4.62
	노함	3.82 3.32	3.96	3.63	4.31	3.62	3.22	4.00
	슬픔	5.79 4.25	4.72	4.32	5.14	4.56	4.05	5.03
	두려움	4.65 3.54	4.50	4.27	4.73	4.11	3.81	4.40
	애정	8.03 8.28	6.15	6.70	5.59	6.25	6.95	5.59
	미움	3.08 2.41	4.01	3.76	4.26	3.72	3.40	4.01
	욕심	4.23 4.07	4.29	4.21	4.36	3.99	3.94	4.04
	계	5.19 4.78 (5.05) (4.60)	4.77	4.79	4.75	4.58	4.63	4.53

주. ()안의 값은 수오와 사양을 각각 둘로 세분하여 측정한 값에서 계산한 6개 정서들의 평균치.

4단과 7정을 경험한 상황에 따른 선악 평정

본 연구 2에서는 본 연구 1에서 사용한 연구설계를 확장하여 4단7정론 가운데 논쟁의 핵심이 되는 가설들을 정리하고 이 가설들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4단7정 정서들이 대인관계 유형, 상황의 도리합치여부, 행위자와 대상, 그리고 정서주체가 행위자 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을 실험설계에 반영하여 4원 요인실험설계를 사용하여 각 조건에서 4단7정 경험을 선악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4단이 순선이라는 퇴계의 가설은 4단 정서들이 당위적 도리에 합치된 조건이거나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경험될 때 모두 선하게 평가된다는 가설로 정리하여 검증하였다. 이 가설은 개인선(전체 5.13, 도리합치 5.15, 도리불합치 5.11)이나 공동선(전체 5.16, 도리합치 5.11, 도리불합치 5.20)을 각각 평가의 관점으로 삼은 두 조건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7정이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정서지만 악으로 호를 경향이 높다는 퇴계의 주장은 우선 7정이 악한 정서로 평가된다는 가설로 정리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이 가설도 개인선(전체 4.77, 도리합치 4.79, 도리불합치 4.75)이나 공동선(전체 4.58, 도리합치 4.63, 도리불합치 4.53)의 관점에서 평가한 자료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이 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4단에서는 공동선의 관점(5.13)과 개인선의 관점(5.16)에서 얻은 평가치가 매우 유사했지만 7정에서는 공동선의 관점(4.58)에서 평가하면 개인선의 관점(4.77)에서 평가할 때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한 사실이다. 이 결과는 4단7정의 선악 차이를 주장하는 배경이 개인선의 관점보다 사회적 공동선의 관점에서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4단과 달리 7정은 도리합치 여부에 따

라서 선악 평가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7정에 포함된 정서들의 경우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이 달리 평가된다는 가설은 각 정서별로 보았을 때도 모두 지지되었다.

이 가설은 퇴계이론과 율곡이론에서 명시적으로 대립 가설로 제안된 바 없다. 퇴계이론은 4단의 경우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 역시 7정도 선악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지만(未定) 대체로 악으로 호를 경향이 높아서 악하게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선악미정의 주장을 해석할 때 도리의 합치 여부에 따라서 7정에 대한 선악 평가가 달라진다고 정리할 수는 없다.

한편, 율곡은 4단이 순선이지만 7정과 마찬가지로 4단 역시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4단 역시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율곡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4단 가운데 율곡이 주장한대로 4단 역시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선악 평가치가 달라진 정서로는 수오(개인선, 도리합치 3.67, 도리불합치 4.40; 공동선, 도리합치 3.32, 도리불합치 4.11) 뿐이다.

4단7정과 상황의 도리합치도에 따른 긍정성-부정성 효과

앞에서는 4단7정 경험을 선악 차원에서 평가한 본 연구 2의 결과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그런데 4단7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이론 진술에는 4단7정의 선악 평가에 관한 심리학적 가설 명제들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곡은 7정이 상황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4단이 순선이기는 하지만 역시 상황에 따라서 선하

거나 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이 상황의 존론을 4단7정의 선악판단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대안 가설 명제로 정리할 수도 있다. 먼저 필자가 본 연구 2에서 제시한 해석과 다른 대안 가설을 일반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리에 합치된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4단이나 7정들 가운데 긍정적 정서들은 선하다고 평가되지만 당위적 도리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4단이나 7정들 가운데 부정적 정서들은 악하다고 평가된다.

이 대안 가설이 본 연구 2의 가설과 다른 핵심적 차이는 4단과 7정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되는 배경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있다. 즉, 퇴계이론에서는 4단7정이 각각 지니고 있는 선악의 속성에 따라서 선악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본 듯하다. 반면, 율곡은 4단7정 가운데 당위적 도리에 합치된 조건에서 경험된 긍정적 정서들과 불합치된 조건에서 경험된 부정적 정서들은 모두 선하게 평가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조건에서 경험된 4단7정 정서들은 모두 악하다고 평가된다고 본 듯하다.

이 대안 가설의 타당성은 본 연구 2의 결과를 재분석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4단7정 정서들의 긍정성-부정성을 근거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표 8와 같다. 표 8에 제시한 평균치들은 표 7에서 제시한 본 연구 2의 선악 평가치들 가운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가치를 도리합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표 7과 표 8의 선악 평가치를 이처럼 다시 정리할 때 도리합치 조건별로 바꾸어 넣은 정서들은 표 8에 *표로 나타내고 평가치들은 큰 숫자로 나타냈다. 유일한 차이는 부정적 경험으로 판단되는 정서들의 경우에 도리합치와 불합치 상황에서 얻은 선악 평가치를 바꾸어 놓은 점이다. 표 7과 표 8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

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해 본다. 4단7정 정서의 긍정성-부정성에 따라서 도리합치성을 평가했을 때 표 7과 다른 유일한 차이는 도리합치된 조건에서만 7정이 선한 정서로 평가된 점이다(7정; 개인선 도리합치 5.16, 공동선 도리합치 5.05). 표 7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얻은 7정 평가치는 다소 악하다고 평가되었다(개인선 도리합치 4.79, 공동선 도리합치 4.63).

이 결과는 7정 정서 가운데도 상황의 합치성에 따라서 선한 정서가 있다는 율곡의 가설을 지지하는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지지된다고 해서 퇴계의 가설이 배척되지는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퇴계는 7정이 상황에 따라서 선이나 악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악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히 도리불합치 조건들에서 퇴계의 7정 가설이 잘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4단7정론의 가설들로 볼 때 주목해 볼 정서들

4단 정서들이 모두 선하게 평가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정서로는 수오(개인선; 계 4.03, 도리합치 3.67, 도리불합치 4.40, 공동선; 계 3.72, 도리합치 3.32, 도리불합치 4.11)가 있다. 비록 도리에 불합치된 조건에서 수오를 경험하면 도리합치된 조건에서 수오를 경험할 때보다 유의하게 덜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했으나 선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 실지 못한 정서주체별 분석 결과를 보면 주목할만한 결과가 발견된다. 수오는 수치와 혐오의 두 정서를 묶은 명칭이다. 이 두 정서별로 나누어 볼 때 도리에 불합치된 상황에서 행위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경험하면 선하다고 평가되었다(개인선 5.45, 공동선 5.41). 그러나 혐오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개인선을 판단했을 때만 선에 가깝다고 평가되었다(개인선 4.80, 공동선 4.35).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표 8. 도리합치와 4·7정서의 긍정성-부정성을 고려한 본 연구결과의 종합

4·7 정서 구분	선행연구 2 (필자, 1996; 2000)		본 연구 2 : 선택 평가			
	개인선	공동선	개인선		공동선	
			도리 합치	도리 불합치	도리 합치	도리 불합치
4단	측은	6.70 6.13	5.08	5.31	4.95	5.38
	수오*	3.74 3.29	4.40	3.67	3.32	4.11
	사양	7.17 7.29	6.02	5.38	6.14	5.44
	시비	6.29 6.61	5.83	5.36	6.04	5.87
	계 1	-- --	5.33	4.93	5.11	5.20
	계 2	5.98 5.64 (5.80) (5.64)	5.15	5.11	5.11	5.20
7정	기쁨	7.00 7.57	6.63	4.82	6.97	4.62
	노함*	3.82 3.32	4.31	3.63	4.00	3.22
	슬픔*	5.79 4.25	5.14	4.32	5.03	4.05
	두려움*	4.65 3.54	4.73	4.27	4.40	3.81
	애정	8.03 8.28	6.70	5.59	6.95	5.59
	미움*	3.08 2.41	4.26	3.76	4.01	3.40
	욕심*	4.23 4.07	4.36	4.21	4.04	3.94
	계 1	-- --	5.16	4.37	5.05	4.09
	계 2	5.19 4.78 (5.05) (4.60)	4.79	4.74	4.63	4.53

주. ()안의 값은 수오와 사양의 평가치를 각각 둘로 계산한 6개 정서들의 평균치.
 계 1은 긍정성-부정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얻은 평균, 계 2는 표 2-1과 표 3-1의 평균.
 * 도리합치-불합치와 긍정성-부정성이 고려된 정서.

방계가설 III-2: 4단 수오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황은 도리가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은 일반적 조건들로 조작되었다. 필자가 생각 하기로는 개인이나 사회에 충격을 주는 부정적인 행동적 사건의 행위자로서 자신에게 대

해서 강하게 수오를 느낄 때만 선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결과로부터 주희가 수오의 개념을 정의한 관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근거를 시사할 수도 있다. 주희는 수치가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이고 혐오는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개인이 도리에 불합치되게 행동한 상황에서 자기혐오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4단 정서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하다고 평가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오 정서에 관해서도 행동적 사건, 대인관계유형, 및 정서주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7정 가운데 도리에 합치된 상황에서 경험된 기쁨(개인선 6.63, 공동선 6.97)은 선하다고 평가되고 도리에 불합치된 상황에서 기쁨이 경험되면 악한 경향이 높다고 평가되었다(개인선 4.82, 공동선 4.62). 그런데 기쁨이라도 도리불합치 상황에서는 행위의 대상으로서 경험할 때보다(개인선 5.03, 공동선 4.80) 행위자로서 경험하면 악한 정서로 평가되었다(개인선 불합치 4.50, 공동선 불합치 4.37). 이 결과 역시 정서주체에 따라서 7정 정서의 선악 평가가 달라짐을 보인다.

한편 7정 가운데 애정(愛)은 도리합치 상황(개인선 6.70, 공동선 5.59)이나 불합치 상황(개인선 6.95, 공동선 5.59)에서 모두 4단7정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애정이란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랑의 의미로 포괄되기 때문에 유학의 어짐(仁)으로 설명되는 바와 유사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결과는 필자(1996)의 선행연구에서 애정을 4단으로 측정했을 때 얻은 평가치들이 모두 높은 사실(개인선 8.03, 공동선 8.28)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4단7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애정을 4단이 아니라 7정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른바 유학의 천리(天理)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기보다 사사로운 애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서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애정을 개인의 사사로운 애정이나 욕정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용어로 대체시켜서 다룰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욕심(혹은 욕망)이 도리합치 여부에 상관 없이 일관되게 나쁜 정서로 평가된 점은 4단7정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유학 사상 이외에 동양의 불교와 노장 사상 등에서도 일관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개인선 계 3.99, 공동선 계 3.79).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 보고된 두 연구 결과의 논의나 종합 논의에서 지적된 점들 이외에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4단7정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대학생들이었다. 이 사실은 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유학에서는 인간이 모두 선하게 태어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록 배우지 않더라도 4단을 선한 정서로서 경험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 가정과 일치되게 대학생들은 현재 대학에서 4단7정론 등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단 경험이 대체로 선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어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7정이 4단보다 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사실은 특히 4단의 생래설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특히 4단7정론에서 제안된 중요한 가설들에 관해서 대다수 대학생들이 비록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현대 시점에서조차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 가설과 조화되는 관점이 우세하게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들이 지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대로 4단과 7정 가운데 이 결론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었다. 장차 이 정서들이 각각 4단7정론의 가설과 일치되게 각각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되는 특수한 조건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맹자 이후 조선시대 4단7정론이 심도있게

연구된 시점까지 일관되게 강조된 점은 4단 경험을 확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특히 성리학에서 제안된 정서이론으로 보면 4단 경험은 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수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도심(道心)의 상태에서 점차 우세하게 나타난다. 성리학 이론이 타당하다면 개인이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심적 상태에서는 이기적 욕구에 지배된 상태일 때에 비해서 4단 경험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또한 4단 경험이 어떤 사고, 동기, 및 행동의도들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하다고 평가되는지 연구할 수 있다. 성리학에는 경(敬), 성의(誠意), 성찰(省察) 등 구체적으로 사사로운 관점을 벗어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자기수양의 이론들이 제안되어 있다. 장차 이 자기수양의 이론들을 4단7정론에 연결시켜서 심리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명제들로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심적 지향성이 달라지는 조건을 실험이나 수련을 통해서 형성함으로써 4단7정의 경험에 대한 선악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연구들에 사용된 연구설계에 따른 한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본 연구 1에서 4단과 7정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적도록 하여 빈도를 얻었다. 그런데 상황을 적도록 해서 얻은 이 빈도는 4단7정의 발생 빈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사회 상황에서 유발되는 4단7정 경험의 빈도나 강도를 주된 종속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2의 실험설계에서 도리의 합치여부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유형별로 조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4단과 7정이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경험되는 빈도도 다르고(연구 1), 선악 평가치도 다르다(연구 2)는 결과를 얻었다. 즉, 대인관계

의 유형에 따라서 4·7경험이 다르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대인관계의 주효과 및 다른 독립변인들과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별로 도리합치 여부, 행위주체, 및 정서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4단7정 경험의 빈도와 선악 평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장래 연구에서 각 대인관계별로 이 변인들을 고려하여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학에서 자기성장은 서구의 인본주의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개인의 자기성장과 달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서 서구에서 자기는 타인과 분리된 개체로서 표상되지만 적어도 동양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자기가 타인과 분리되지 않은 채 단위를 이루는 관계로서 표상된다(한덕웅, 1995). 이 주장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친밀한 대인관계들에서 경험하는 4단7정 정서의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유학에서 자기성장은 자기 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친밀한 관계부터 시작되어서 점차 자기성장이 진전될수록 광범한 사회관계로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유학에서 공적이고 소원한 사회적 역할관계를 등한히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4단이나 7정이 우세하게 경험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상황과 특수한 대인관계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여 4단7정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2에서 사회행동이 도리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조작할 때 구체적 행동적 사건을 조작하지 않고 행동적 사건이 발생한 후 초래된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조작되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연구 2의 선악평정치가 선행연구(1996)에서 대인관계나 행동적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조건에서 얻은 평정치보다 높은 집중경향을 보였을 수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개인

이나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행동적 사건들 가운데 당위적 도리에 합치하거나 합치하지 않은 사건들을 가려내어서 상황 맥락이 고려된 조건들에서 4단7정론을 검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리학의 4단7정론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경험을 직접 다루기 위하여 선악판단을 종속변인으로 연구하였다. 그런데 4단7정론에서는 이기론 이외에 4단7정 정서가 선악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심리학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단이나 7정을 경험함으로써 행위자, 행위의 대상 및 사람들에게 초래하는 사고, 동기 및 행동의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선악판단에 어느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이 심리학적 근거들과 과정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과제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필자(1998)는 4단7정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심리학적 기능들을 연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단7정에 속하는 각 정서들을 경험한 조건에서 초래되는 정서 경험의 강도, 심리적 자기수양,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진전 및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또한 필자(2001)는 한국의 전통 한의학(韓醫學)에서 신체질병의 발병과 치료 과정에서 정서의 자기조절을 강조하는데 착안하여 4단7정 정서들이 신체의 각 부위별 질병이나 치료에 연결되는 경로들을 건강심리학 이론의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필자의 이 연구들은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여러 기능이나 질병 등과 연결지어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차 본 연구보다 더 확대된 지평에서 4단7정론의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이론으로 개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1) 조선시대 한국에서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크게 발전된 4단7정론

을 현대 시점에서 심리학이론으로 발전시켜서, (2) 그 가운데 일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 명제들로 제안하고 (3) 이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설계의 한 전형을 고안하여, (4)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5) 조선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인간 정서에 관한 이론으로 제안되었던 심리학 이론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쓸모없고 공허한 이론(空理空論)에 불과하다고 오해받고 있는 4단7정론을 심리학 영역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4단7정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연구하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에 불과하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심리학자들이 이 주제를 더 다양한 관점들에서 다룸으로써 한국에서 발전된 전통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으로 계승되어서 새로운 연구 영역들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이이 (1958). 율곡전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이익 (1973). 심경부주질서. 성호전집(827-846쪽).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이황 (1958). 퇴계전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정약용 (1973). 심경밀협. 여유당전서. 경인문화사.
- 주희 (1959). 사서집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한덕웅 (1993a). 퇴계의 성리학에 관한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1). 퇴계학보, 78, 40-90.
- 한덕웅 (1993b). 퇴계의 성리학에 관한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2). 퇴계학보, 79, 35-87.
- 한덕웅 (1993c). 한국 성리학에서 심적 자기조절론:

- 퇴계의 심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23-44.
- 한덕웅 (1993d). 퇴계의 성리학에 관한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3). 퇴계학보, 80, 43-108.
- 한덕웅 (1994/1996).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5). 집단행동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한덕웅 (1995). 한국 유학심학의 심적 자기조절론: 퇴계심학을 중심으로. 임능빈(편), 동양사상 심리학 (179-212쪽). 서울: 성원사.
- 한덕웅 (1996). 대인관계에서 4단7정 정서의 발생 경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89-409.
- 한덕웅 (1996). 퇴계 심학의 실증적 연구 방향 모색. 퇴계학보, 89(특집호), 44-62.
- 한덕웅 (1998). 4단7정 정서 경험의 사회심리학적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03-522.
- 한덕웅 (1999). 한국 유학의 심리학. 최상진 외(편), 동양심리학 (163-285쪽). 서울: 지식산업사.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7정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45-166.
- 한덕웅 (2001). 한국의 전통의학 사상에서 정서와 신체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22.
- 한덕웅, 전경구 (1991). 정서과정설로서 퇴계의 사칠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New York: Springer-Verlag.
- Averill, J. R., Chon, K. K. & Hahn, D. W. (in press). Emotions and creativity: Some confluences between East and West. *Journal of Asian Social Psychology*.
- Harré, R., & Parrott, W. G. (1996). *The emotions: Social, cultural and biological dimens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lomon, R. C. (1993). *The philosophy of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3-15). N.Y.: Guilford Press.

An Empirical Study of Four-Seven Debates in Korean Neoconfucianism

Doug-Woong Hahn

Depr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ere were many psychological theories in the Four-Seven Debates of the Neo-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psychological theories of moral judgments from the debates and to examine the derived hypotheses empirically through two experiments. The first study dealt with the differences in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Four-Beginnings and the Seven-Emo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in situational contexts for the Four-Beginnings could be explained by the social good-bad goals or standards, whereas those of the Seven-Emotions could be explained by the personal good-bad goals or standards. The second study dealt with the moral judgments of the Four-Beginnings and the Seven-Emotions directly through an experiment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tex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ral judgments of the Four-Beginnings and the Seven-Emotions were varied by the moral connotations of the behavioral events, the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types of the moral judgments. Especially the moral judgments of the Seven-Emotions were more based upon the abo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han the Four-Beginning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re discussed with the previous studies performed by the author(1996, 1997, 1998, 2000)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are added.

Key Word: Korean neoconfucianism, Four-Seven Debate, emotion psychology, moral judgments, empirical study

1차 원고 접수: 2000년 9월 18일
수정 원고 접수: 2001년 3월 21일
최종 게재 결정: 2001년 4월 17일